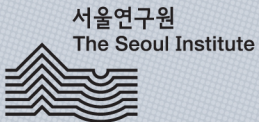


2013-PR-20

작은 연구 좋은 서울 01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김지연



2013-PR-20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김지연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대표
연구원	박상병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우대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최혜자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례

I	서론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2
3	연구 방법	13
4	연구 흐름도	14
II	노숙인 현황	16
1	노숙인의 정의	16
2	노숙의 원인	18
3	노숙인의 생활	20
3 1	주거취약계층 규모	22
3 2	연령	22
3 3	학력	23
3 4	첫 노숙 시작 시기	23
3 5	가족, 친지 연락 현황	24
3 6	노숙을 하게 된 원인	24
3 7	여가활동	25
3 8	시사점	26
4	노숙인 복지정책	26
4 1	노숙인 시설 현황	27
4 2	복지서비스	28
4 3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화복지 필요	29

III	국내외 노숙인 문화예술 사례	32
1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2
1 1	연극프로그램	33
1 2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36
1 3	성프란시스대학 “두드림 품물패”	39
2	드림 시티	40
3	밴쿠버 카네기 커뮤니티센터	42
4	NPO법인 사나기다치	49
5	스트릿 와이즈 오페라	51
IV	노숙인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타당성 조사	54
1	조사 개요	54
1 1	조사배경 및 목적	54
1 2	조사 대상	54
1 3	조사 설계	54
1 4	조사 내용	55
1 5	설문 참여 현황	56
2	노숙인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57
2 1	일반 현황	57
2 2	문화예술 관심도	62
2 3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관심도	67
3	노숙인 지원 활동가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71
3 1	문화예술 관심도	71
3 2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관심도	73
4	노숙인 문화예술 참여자 및 문화예술 지원 활동가 인터뷰	76
4 1	조사 배경	76

4 2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76
4 3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노숙인 지원 활동가	78
V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성과 역할	86
1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의미	86
1 1	노숙인 문제를 다시 보기	87
1 2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	88
2	시민문화예술의 가치	91
2 1	시민문화예술의 의미	91
2 2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	93
3	노숙인에게 문화예술활동이 주는 효과	93
3 1	자아 존중감	94
3 2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94
3 3	공동체 형성	97
4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역할	99
4 1	관계의 그물망	100
4 2	노숙인 문화예술의 실험실	102
4 3	노숙인의 삶의 성장과 네트워크	105
VI	결론	108
1	제언	108
2	향후 과제	110
	참고문헌	116

표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노숙 경로	20
표 2-2	연령별 노숙 현황	22
표 2-3	학력별 노숙 현황	23
표 2-4	노숙 시기	23
표 2-5	가족, 친지 연락하고 지내는 상황	24
표 2-6	노숙의 원인	24
표 2-7	여가활동	25
표 4-1	노숙인 설문 조사 내용	55
표 4-2	노숙인 지원활동가 설문 조사 내용	5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3-1	연극프로그램 수업과정 - 장소	33
그림 3-2	2011~2012 공연 포스터 모음	34
그림 3-3	2011~2012 공연 및 관객과의 대화 사진	36
그림 3-4	드림시티 외부전경	40
그림 3-5	드림시티 내부전경	41
그림 3-6	밴쿠버 카네기센터 외부전경	42
그림 3-7	밴쿠버 카네기센터 휴게실	44
그림 3-8	노숙인 참여 페스티벌 포스터	47
그림 3-9	밴쿠버 카네기센터 내부 전경	48
그림 4-1	노숙인 성별 현황	57
그림 4-2	노숙인 나이 분포	58
그림 4-3	노숙 기간 분포	58
그림 4-4	노숙인 잠자리 현황	59
그림 4-5	노숙인 월간 노동시간	60
그림 4-6	노숙인 여가 시간	61
그림 4-7	노숙인 여가 활동	61
그림 4-8	노숙인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	62
그림 4-9	노숙인 문화예술 경험 현황	63
그림 4-10	노숙인 현재 문화예술활동 참여 유무	63
그림 4-11	노숙인 참여 문화예술활동	64
그림 4-12	노숙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65
그림 4-13	노숙인 문화예술 참여자 대상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	66

그림 4-14	노숙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필요	68
그림 4-15	노숙인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참여 여부	69
그림 4-16	노숙인 참여 프로그램	69
그림 4-17	노숙인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필요 시설	70
그림 4-18	지원 활동가 문화예술 경험	71
그림 4-19	지원활동가 대상 문화예술 지원 필요	72
그림 4-20	지원활동가 대상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73
그림 4-21	지원활동가 대상 공간 필요성	74
그림 4-22	지원활동가 대상 희망 프로그램	74
그림 4-23	지원 활동가 대상 공간 필요 시설	75
그림 5-1	관계 그물망	101
그림 5-2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의 노숙인 효과	102
그림 5-3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프로그램 및 외부 소통 방법	104
그림 5-4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외부 네트워크	106

I 서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3 연구 방법
- 4 연구 흐름도

I 서론

1 연구 배경

- 문화예술에서 ‘문화복지’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이 말은 참 낯설다, 특히 이제야 ‘노숙인 복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노숙인’에게 “문화복지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이 될 것이다”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을 현대 사회를 같이 사는 ‘시민’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연구는 시작되었다.
- 2010년 종로구에 위치한 쪽방촌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그 전까지는 길에서 보게 되는 노숙인들, TV 르포 등을 통해 보는 쪽방촌이라는 2~3평의 작은방에 사는 사람들 정도의 정보만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프락시스’와 ‘종로주민센터’가 함께 한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민연극>을 통해, 그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았고, 그들과 연극까지 올릴 수 있었다.
- 2011년 노숙인들과 다시 새롭게 작업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 ‘아웃리치’라는 것을 나가면서 노숙인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고, 거리와 임시 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참 다양했다. 남들 앞에서 말하

는게 어색해 참여한다는 분,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것을 해보고 싶었다는 분, 한글은 잘 몰라도 입으로 트럼펫을 부는 분, 유창한 영어, 한자 실력을 보여주는 분, 5년 전에 연극을 해봤는데 좋았던 기억으로 다시 하고 싶다는 분까지 각자 다른 이유로 모였다.

- 참여자들과 9개월 가까이 매주 만나면서 친해졌다. 노숙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처음 시작은 누군가에겐 두려움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불편함이었다. 그러나 연극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동료가 되었다, 서로 배려할 줄 알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귀 기울여 주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빠치고, 안한다고 나갔다가도 몇 주 뒤 다시 연극을 하고 싶다고 돌아왔다. 그렇게 3년간 노숙인 참여자들의 삶 속 이야기가 들어있는 세 개의 연극과 노래 발표 등을 하고 있다.
- 이들과 연극으로 만나면서, 노숙인들의 삶을 보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기초수급자로 할 일 없이 보내는 사람들,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할 줄 알았던 게 많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새벽같이 일어나 일자리를 찾다가 놓치면 어딘가 하릴없이 앉아 있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급식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찾았다. 도시의 24시간이 지치고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다른 삶의 방식은 없을까? 그 시간들을 다르게 보낼 수는 없을까? 그들을 받아줄 곳은 없을까?
- 연극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었다. 틈나면 연습을 했고, 어떤 이는 남산도서관까지 가서 대본을 외운다고 했다. 무대를 만드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새로

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

- 문화예술은 분명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다. 노숙인들은 기존의 사회 지원 외에 문화 복지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아닐까? 다시서기지원센터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은 공감할까?”, “노숙인들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할까?”, “문화예술을 맞본 사람만의 자화자찬인 것은 아닐까?”,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장소를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는 의미 없는데... 그 공간을 쓸 사람들의 의지를 알아보자”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대로 포함되기 어려웠던 ‘노숙인’에 대해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에서 낯선 ‘노숙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문화예술 지원이 줄 수 있는 효과와 가치를 찾아야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숙인을 향한 문화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한편 정책의 실행은 필요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아직도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의료, 생활 등 사회복지로서의 기본적 지원도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 제시되는 문화 복지인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노숙인 및 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 복지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를 통해 노숙인의 문화 복지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노숙인과 관련하여, 현재 노숙인에 대한 정의와 노숙인의 생활, 지원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노숙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국내외 노숙인과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공간의 사례 분석으로 문화예술이 노숙인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한다.
- 노숙인과 노숙인 지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 노숙인에 대한 문화복지 접근의 가능성과 가치를 효과성을 중심으로 찾아보며, 이로부터 노숙인의 문화예술창작공간이 가져야 할 역할을 점검해 본다.

연구 흐름도

2. 노숙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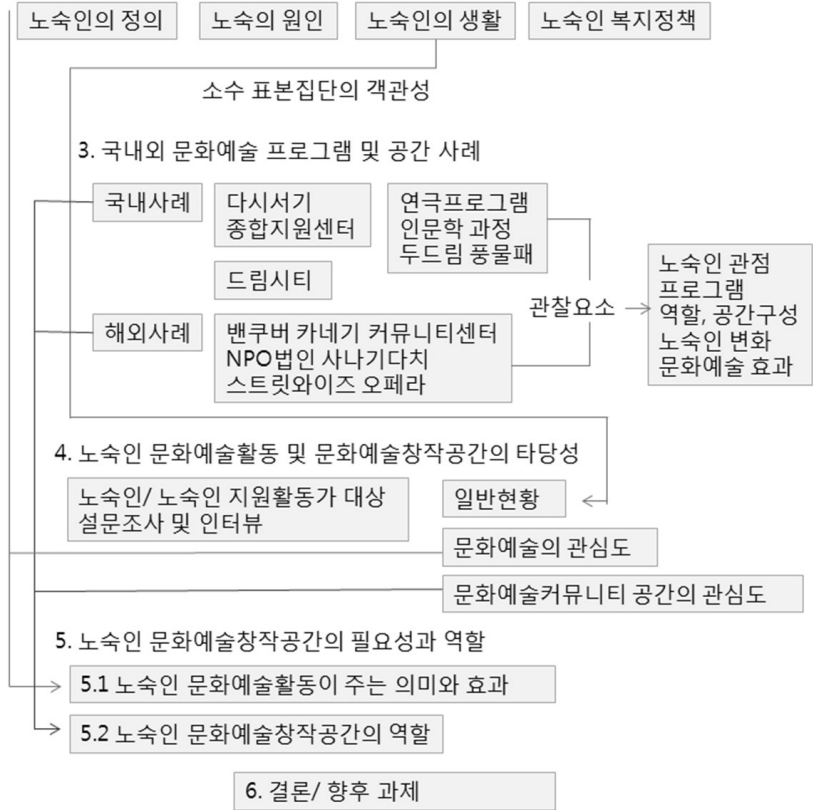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흐름도

II 노숙인 현황

- 1 노숙인의 정의
- 2 노숙의 원인
- 3 노숙인의 생활
- 4 노숙인 복지 정책

II 노숙인 현황

1 노숙인의 정의

- ‘노숙인’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숙소가 없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다르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UN에서는 노숙인(Homeless)을 ①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 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②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③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 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숙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노숙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미국의 NCH(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 1998)에서 규정한 기준은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이다.
- 미국의 맥킨니(Stewart B. McKinny)법 (U.S.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1999)에 따르면, ①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는 사람, ②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③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

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홈리스지원유립연합(FEANTSA)에서는 ① 어떠한 종류의 실 곳도 없는 상황, ② 임시로 쉼터나 시설에서 기거할 수는 있는 상황, ③ 불안정한 임대나 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위협 받는 상황, ④ 불법적 야영지 이동주택, 부적절한 주거, 극단적 과밀주거에 사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숙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그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은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 당면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아직 주거를 상실하지 않았지만 주거불안상태에 놓인 계층, ② 이미 주거를 상실하였지만 가족적 지지망이 해체되지 않아 형제나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③ 이미 주거를 상실하였고 가족적 지지망마저 해체되어 비닐 하우스나 쪽방과 같은 임시의 불안정한 주거시설과 장기보호시설 및 노숙인단기보호 쉼터에서 생활하는 계층, ④ 비닐 하우스나 쪽방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숙식을 해결하는 계층을 포괄하여 규정한다.
-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 등’이란 ①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자, ②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결국 노숙인이란 주거문제를 배경으로 형성된 빈곤계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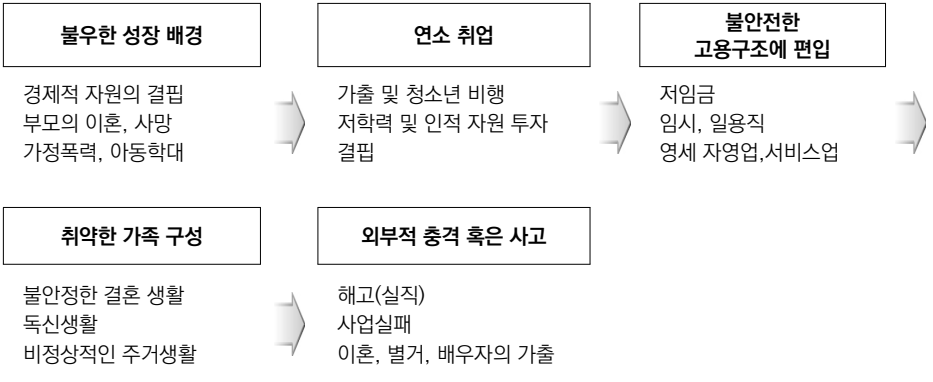
노숙의 원인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노숙인이 된 것은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숙인이 된 현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 IMF 직후인 1999년은 노숙인이 가장 많았던 해이다. 당시 전국의 (쉼터, 거리) 노숙인이 6,000명을 넘어섰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실직,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인 배경을 통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시각이 온정적이었다. 비록 임시구호형식의 지원이기는 했지만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개입으로 다수의 노숙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쨌든 그 지원과 개입으로 노숙인의 수는 점차 감소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동정적 시각도 감소했다. 아님, 노숙인의 피폐화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했다. 그리고 노숙인이 된 것은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견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노숙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노숙의 배경이나 원인을 크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빈곤,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부족, 열악한 경제적 조건(Elliot & Krivo, 1991; McCarty et al., 1991; 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 1998) 등을 거론하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실직, 정신 및 신체 건강 문제, 가족 친치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꼽고 있다. 미국 홈리스를 위한 전국연맹(NCH)의 1998년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의료보호의 부족, 가정폭력, 정신질환, 약물 의존 등을 거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김수현(2002)은 누적된 한계적 빈곤층,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저렴한 주택의 재고 감소,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미약,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학력, 비숙련, 중고령 노동자의 배제, 확대되는 가족해체 경향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의 사회 경제적 구조로 설명하였고, 노대명(2004)의 연구에서 노숙은 실업과 고용불안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득감소에 따른 주거부담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노숙인의 대부분이 노숙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실직이나 고용 불안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현시웅(2009)은 사회보험의 미흡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범위의 한계,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수용 중심적 보호 정책 등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노숙인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였다.
-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회의 사회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관계의 악화, 저렴한 주택의 부족, 이웃공동체의 붕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상황이 악화되어 노숙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전반을 종합하면 노숙인의 과거의 삶이 대부분 어려웠고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숙의 발생배경을 반드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

¹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0, 「2009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표 2-1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노숙 경로



자료 : 김수현·서종균, 1999,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8

3 노숙인의 생활

- 노숙인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노숙인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모든 노숙인이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장기간의 노숙으로 피폐화된 노숙인은 게으르며 일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반적인 노숙인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거리 노숙인도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꽤 많은 거리 노숙인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앵벌이(구걸행위), 꼬지(교회나 성당 등에서 주는 구제금을 얻는 행위), 꽃꼬지(여성 노숙인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매매춘) 등을 통해 생활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거리 노숙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담보호센터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거리 노숙인이 일시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에서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 잔 뒤 아침 7시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숙인은 그보다 이른 시간인 4시에서 5시가 되면 대부분 거리로 향한다. 그것은 일자리를 찾아 새벽에 열리는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불과 5~10%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일자리를 찾아 새벽 일찍 나가고 있다. 아침 5시 반 무렵이 지나면 인력시장은 파장이 된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노숙인은 6시쯤 지하철역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출근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노숙인 모두가 나태하다고 하는 것이다.

- 최근 저학력의 실업률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대거 일하게 되면서 더욱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숙생활로 형성된 심리적 위축감, 직업에 적절하지 못한 옷차림(작업신발, 작업복 등), 주민등록증의 분실과 주거지가 없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등의 조건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거리 노숙인들은 직업과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어가고 거리생활에 고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²
- 노숙인의 현황과 생활을 2011년 11월에 실시한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의 설문조사³의 대상자 1,500명(거리노숙 300명, 부랑인 노숙인 시설 1200명)과 2012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거리노숙자 현황조사 279명⁴(거리노숙 127명, 센터이용자 152명)을 기반으로 정리하고자 한다.⁵

2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0, 「2009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3 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pp.5~17

4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 「2012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pp.305~317

5 본 조사·정리는 기존 조사를 재인용하는 것으로 항목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이 달라 일부는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료 정리는 문화예술을 근거로 한 노숙인의 현황 파악에 집중하였다.

3.1 주거취약계층 규모

- 전국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규모⁶는 261,038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서울의 주거취약계층 인구는 118,108명으로 전국의 45.2%가 집중되어 있다.

3.2 연령

- 노숙인의 평균 연령은 40대~50대가 집중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연령별 노숙 현황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20대미만		1(0.1)		
20대	11(37)	29(2.4)	5(4.8)	3(2.0)
30대	32(10.7)	188(15.8)	18(17.1)	30(19.7)
40대	117(39.0)	334(28.0)	25(23.8)	54(35.5)
50대	96(31.7)	407(34.1)	46(43.8)	55(36.2)
60대	35(11.7)	192(16.1)	9(8.6)	10(6.6)-60대이상
70대 이상	10(3.3)	41(3.4)	2(1.9)	
합계	300(100)	1,192(100)	127(100)	152(100)

⁶ 주거취약계층에는 거리노숙/부랑인·노숙인 시설/비숙박용다중이용업소/쪽방/여관·여인숙/고시원/비닐하우스촌/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시설폐소예정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번 정리에는 거리노숙과 노숙인 시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학력

-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받은 인원이 거리노숙 58.3%, 시설이용자 57.4%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과거와 달리 노숙인 학력이 높아진 상태이다.

표 2-3 학력별 노숙 현황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초졸 미만	25(8.3)	133(11.1)	-	-
초졸	66(22.0)	274(22.9)	-	-
중졸	84(28.0)	280(23.4)	-	-
고졸	107(35.7)	428(35.7)	-	-
전문대졸	5(1.7)	23(1.9)	-	-
대졸	13(4.3)	56(4.7)	-	-
대학원졸	-	4(0.3)	-	-
합계	300(100)	1,198(100)	-	-

첫 노숙 시작 시기

- 노숙시기가 5년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만성 노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4 노숙 시기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2012년	-	-	17(14.05)	23(15.1)
2009~2011	-	-	17(14.05)	64(42.1)
2006~2008	-	-	23(19.0)	37(24.4)
2005년 이전	-	-	64(52.9)	28(18.4)
합계	-	-	121(100)	152(100)

가족, 친지 연락 현황

-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비율이 거리노숙의 경우 72.3%, 시설이용자의 55.1%로 가족, 친구관계의 단절이 보여진다.

표 2-5 가족, 친지 연락하고 지내는 상황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아예 연락을 끊고 산다	172(59.5)	508(43.5)	-	-
만나지는 않지만 전화, 이메일 등 연락을 한다	44(15.2)	187(16.0)	-	-
연락하고 가끔 만난다	36(12.5)	333(28.5)	-	-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	37(12.8)	136(11.6)	-	-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	-	-	-	-
기타	-	4(0.3)	-	-
합계	289(100)	1,168(100)		

노숙을 하게 된 원인

표 2-6 노숙의 원인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실직 및 사업실패	-	-	51(42.9)	-
가족 해체	-	-	30(25.2)	-
부채 및 신용불량	-	-	12(10.1)	-
질환 및 장애	-	-	5(4.2)	-
도박(경마, 사행성 게임 등)	-	-	3(2.5)	-
주거지 상실	-	-	6(5.0)	-
기타	-	-	12(10.1)	-
합계	-	-	119(100)	-

- 노숙을 하게 된 원인으로 실직 및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이 53%에 이르고, 가족 해체도 25.2%에 이른다. 이 원인은 이들의 가족, 친구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7 여가활동

- 여가활동에 있어 시설이용이 32.5%로 가장 높게 나왔고, 휴식 및 수면 보충이 26.5%로 조사되었다. 시설은 이후 복지정책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본 생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편 대부분의 시설들은 공간 제약성으로 약간의 휴식공간만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식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많지 않다.

표 2-7 여가활동

(단위 : 명, (%))

	전국 실태조사		다시서기 조사	
	거리노숙	시설 이용자	거리노숙	센터 이용자 ⁷
노숙인 시설 이용	-	-	38(32.5)	-
구직활동	-	-	15(12.8)	-
휴식 및 수면 보충	-	-	31(26.5)	-
사람 만나기	-	-	9(7.7)	-
취미 활동	-	-	8(6.8)	-
종교 활동	-	-	6(5.1)	-
기타	-	-	10(8.5)	-
합계	-	-	117(100)	-

7 다시서기 설문조사에서는 주수입원으로 정리되었으나, 전국조사에 맞추어 재정리하였음.

- 조사 결과를 통해 노숙인의 생활을 살펴보면 40대~50대로 평균 연령이 높고, 가족, 경제문제로 인한 인간 관계의 해체, 수입 및 생활의 불안정함이 보인다. 이것이 노숙의 생활을 만성으로 만들기도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노숙인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일시적 대책이 아닌 다양한 복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숙인 복지정책

-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노숙인 복지법 제정은 사회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권이 ‘노숙인 등’에도 보장되도록 하위 법에서 구체화 되었다. 둘째, 거리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분리된 대책에서 잠재적 홈리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 지평이 확대되었다. 셋째, 복지서비스와 시설을 체계화하고 통일하였다. 넷째, 노숙인 등에 제공되어야 할 복지서비스에 주거지원이 명문화되었다. 다섯째, 노숙인 대책을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행정부 간 협력,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⁸
- 법이 시행된 이후로 법률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행정부의 적극적 해석과 협력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노숙인복지법은 이후 노숙인 지원 대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며, 이 연구도 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⁸ 정원오, 2012,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현재의 쟁점”, 「복지동향」.

노숙인 시설 현황

-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노숙인시설이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종합지원센터, 부랑인시설로 구분되었다가 법률이 시행된 2012년 6월 8일부터는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종합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
-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 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 노숙인 자활시설 :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
- 노숙인 재활시설 :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 노숙인 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노숙인 급식시설 :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 노숙인 진료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쪽방 상담소 :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된다. 최근 들어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숙인의 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과 급식, 의료, 고용, 응급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주거지원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 노숙인 등의 성별·연령·직업, 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의 방법 및 절차 :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 급식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노숙인 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고용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응급조치 :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증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43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화복지 필요

-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직 낯설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의 생활을 볼 때 이들의 문화복지의 필요는 절실하다.
-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의식주를 포함한 소득, 교육, 건강, 주택 등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사회제도를 통해 충족시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노숙인의 복지정책 또한 이 개념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 노숙인 지원 현장 또한 시설현황과 복지서비스에서는 노숙예방과 근시안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과연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복지 서비스만으로 노숙인들의 삶이 변화 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문화 복지'란 정신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제고에 이른다고 본다.⁹ 기존의 '사회복지'가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집중되어 왔는데, 신자유주의 사회로 가면서 중장년 실업, 청년의 취업부재, 노령화,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있어 이제는 물질적인 것뿐 아닌 정신적, 사회적 복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⁹ 김세훈·조현성,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9~18

노숙인 현장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 노숙인의 의식주와 응급지원만으로 노숙인을 탈피할 수 없는 많은 한계를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숙인들의 나약해진 자존감, 사회성, 관계맺기의 어려움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줄 문화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 현재 몇몇 시설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노숙인에게 문화프로그램과 사회화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며, 목표 또한 사회화를 위한 치유성 목적이 크다 보니,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 과연 노숙인들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노숙을 탈피할 수 있는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질’을 노숙인들이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일까? ‘삶의 질’의 향상은 일반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이 노숙을 탈피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외형적 성과물보다 노숙을 탈피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실제 프로그램들이 보여주고 있다.

III 국내외 노숙인 문화예술 사례

- 1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2 드림시티
- 3 밴쿠버 카네기 커뮤니티센터
- 4 NPD법인 사나기다치
- 5 스트릿 와이즈 오페라

III 국내외 노숙인 문화예술 사례

1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국내 사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성공회에 위탁 설립한 노숙인 지원센터이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실직과 파산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숙인들을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거리에서 노숙인들을 직접 상담하기도 하고, 임시로 머물 보호시설 운영,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 또한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및 저녁식사 제공,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2005년 7년을 넘게 노숙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시혜적 차원의 의식주 해결은 노숙인 서비스의 한계라는 판단과, 노숙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정신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의 개설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다시서기지원센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프락시스와 함께하는 연극프로그램’, ‘성프란시스대학의 인문학과정’, 그리고 인문학과정의 선후배들로 만들어진 ‘풍물팀’이 있다. 이외에도 영화관람, 연극관람, 여행 등 노숙인들을 위한 일회성 예술지원이 있기도 하다.
- 다음에 소개되는 다시서기지원센터 3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사례들의 특성은 1년에서부터 여러 해 동안 참여자들이 인문학이나 연극, 풍물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구성과정에서 참여자간의 관계형성이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동력들을 만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존감 회복 및 삶의 동기 유발과 더불어 동료애, 주체성을 높이고 있다.

11 연극프로그램¹⁰

-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는 2010년 쪽방촌 사람들과의 연극프로그램을 경험으로 2011년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시민 연극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명의 참여자와 강사, 센타 담당자, 상담사, 다큐감독이 함께 주 1~2회로 연극을 통한 소통을 만들고 있다. 연극프로그램은 강의형 교육이 아닌, 참여자들의 과거/현재에서 겪는 생각들을 연극이라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 표현해 내고, 공연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한다. 그 과정에서 1박2일의 캠프를 가고, 연극을 보고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극프로그램을 넘어선 그들의 교류모임인 ‘극단 연필통’이 만들어졌다.



그림 3-1 연극프로그램 수업과정 - 장소

- 본 사업은 ‘서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2011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서기와 프락시스는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극을 추진하자는 의도 아래, 거리 아웃리치, 임시보호시설 홍보 등을 통해 참여할 노숙인들을 모았고,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8명으로 시작되었다.

10

노숙인 연극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의 단체활동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일련의 과정 속에 참여자들과 강사들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그해 10월 말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Seoul Station>의 제목으로 공연을 올렸다. 노숙인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얻었고, 연극과 공연발표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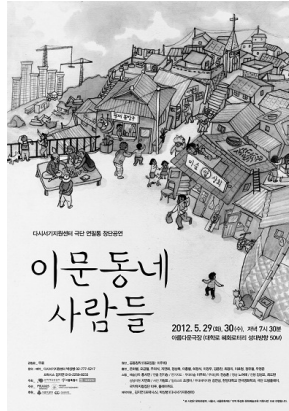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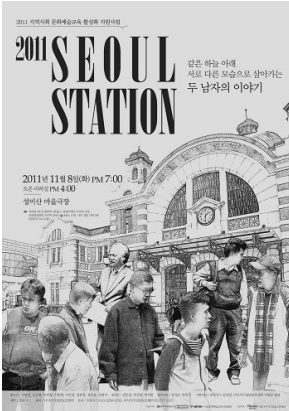


그림 3-2 2011~2012 공연 포스터 모음

- 2012년 2차년도에는 다시서기센터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로 연극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로운 참여자들이 늘었고, 참여자와 강사 간의 관계를 도와줄 상담사, 노숙인 다큐 촬영을 하고있는 다큐감독, 자원활동가 등 20여명이 만났다. 또한 이들은 외부 참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었다, 함께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연극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돈독한 관계는 극단 연필통(연극으로 필(必)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이문동네 사람들>, <연필통 사람들>이라는 두편의 연극을 올리게 된다. 5월 공연은 20년 전 그들이 젊은 시절 경험했던 서울로 들어와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11월 공연은 연극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즐거움과 갈등을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 2013년 3차년도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모색을 한다. 2년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무대에 오르면서 성취감과 연극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고 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3년간의 참여/관찰의 과정에서 연극에 참여하는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료애, 연극을 통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노숙인의 편견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다른 많은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의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상반기에는 소품들을 만들어 서교아트센터, 다시서기임시보호센터, 청계천 야외무대 등에서 공연을 가졌고, 하반기에는 그들의 경험에서 겪는 생각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연극을 시도하고자 한다.
- 지난 3년의 과정을 거치며, 무리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에게 “연극”의 예술활동은 삶의 활력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었다. 노숙인들은 가족이나 친구관계가 거의 부재한 사람들로서, 의무나 책임에 대해 자의든 타의든 포기하게 된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았다. 그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없었다.
- 그러나 연극프로그램을 하면서 동료들이 결석하는 것을 챙기고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1박2일의 엠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식사를 마련해주고 잠자리를 살피주는 것, 공연을 만들고 발표까지 몰입하면서 오는 성취감, 동료 및 다른 노숙인들,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긍정적이며 건강한 시선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료들을 서로 챙겨야 한다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 그 모든 과정들과 맞닿아 있는 1년의 예술 활동이 외형화된 경제적 자립의 근거를 줄 수는 없겠으나,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과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간들은 취미활동을 넘어 다시 서기센터나 상담사로 하여금 참여자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찰을 토대로 이들이 좀더 건강한 삶의 가능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 문화예술활동과 자립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3 2011~2012 공연 및 관객과의 대화 사진

12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은 2005년 다시서기센터에 새로 부임한 임영인 신부가 당시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클레멘트 코스’의 창시자인 얼쇼리스 교수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만든 첫

번째 인문학 과정이다.

- 2005년 9월 1기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한 이래, 1학기에서 1년으로 과정으로 늘리고 성프란시스대학이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3년 현재 20명의 9기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얼쇼리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 합법적이고 정당한 힘의 의미를 깨우치는 과정,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 도시와 주, 국가안에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며 ‘클레멘트 코스’를 만들었다.¹¹
- 임영인신부는 오랜 노동현장의 경험 속에 ‘경제적 안락을 넘어 인간으로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노숙인의 삶을 보았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형성되며 더불어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숙인은 ‘자존감’이 상실되거나 짓밟힌 사람들로 그 비참한 상황에 계속 방치된 것이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인문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성프란시스대학을 설립하게 된다.¹²
- 전경수(성프란시스대학 사무국장)씨는 “기존의 노숙인 지원활동을 하는데 의식주를 지원하면서 노숙인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11 성프란시스대학, 2012, 「거리의 인문학」, 삼인, pp.31~32

12 성프란시스대학, 2012, 「거리의 인문학」, 삼인, pp.62~77

지원으로 과연 노숙인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인문학과정을 접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되었다. 매주 인문학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1년의 시간 속에 모두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초기와 다른 변화가 생겼다. 쉽게 나아지지는 못하겠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성프란시스대학은 인문학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더불어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닌 그룹화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자조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한다.

-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강의가 점진적이라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경우 반응과 기억이 크게 오는 것을 본다. 1년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이들에게 현장학습, 공연에 대한 경험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고, 어떤 텍스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인문학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극팀을 보면, 누구보다 높은 자존감과 연극에 대한 애정을 보게 되었고, 문화예술활동의 또 다른 가치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¹³
- 현재 성프란시스대학은 주 4일씩 1년에 걸쳐 글쓰기, 문학, 한국사, 예술사, 철학의 다섯 과목을 가르친다. 교육 시간 외에도 전시회, 공연 등의 문화예술 관람, 여행 등이 기폭제가 된다. 또 매일 수업 전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이전 선배들을 위한 특별 강좌도 마련하면서 인문학 과정을 통한 자조집단으로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성프란시스대학 “두드림 풍물패”¹⁴

- “두드림 풍물패”는 2008년, 성프란시스대학 4기 과정에서 생겨났다. 당시 강의를 하던 인문학 교수팀의 추천으로 풍물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 현재 7~9명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두드림 풍물패”는 주로 영남시물놀이와 난타 공연을 한다. 현재 별도의 연습실이 없으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초기에는 가양동 교회에서 연습을 하였다. 풍물의 특성상 일반 사무실에서는 연습의 제약이 있어 연습과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째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풍물의 매력이며, 이들에게 삶의 활력이라고 얘기한다.
- 최근 “두드림 풍물패”는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끔 외부 공연을 나가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일합방 100년 기념식”으로 성균관대에서 초청 공연을 한 것과, 청계광장에서 공연을 한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날에도 가양동에 있는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아직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공연을 해도 ‘노숙인 풍물패’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물에 빠져 시간을 내서 만나고 연습을 하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달려간다.

드림 시티¹⁵ (국내 사례)


- 드림시티는 우연식 목사가 2011년 세운 선교교회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서울역 근처의 4층 건물을 임대하고 노숙인을 위한 휴식, 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드림시티의 지하는 세탁실과 컴퓨터 및 짐보관실, 1층은 휴게실(TV관람 및 장기/바둑, 미용), 2층은 회원을 위한 식사와 숙박실, 3층은 작업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옥상은 농작물재배(이전에는 족구장으로 사용, 노숙인들의 운동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신체피로도가 높고, 족구경험이 부족한 이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 최근 농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몇몇 노숙인들이 스스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함)로 활용되고 있다.
- 드림시티는 선교교회이지만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드림시티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끊임없는 상담과 다양한 생활지원을 한다. 매일 200~3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공간을


그림 3-4 드림시티 외부전경

 이용하며, 회원을 위해서 매일 24시간 숙식지원으로 운영된다.
- 우연식 목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풀어가다 보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그들과의 정서적 공감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또한, 우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 노숙인들을 잘 설득하다 보면 삶의 욕구를 갖고 있거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림 3-5 드림시티 내부전경

- 아직까지 ‘드림시티’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여 소모임처럼 운영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이전에는 노래방, 영화, 책, 밴드 등의 소모임활동을 제안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미술작가의 협력으로 미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주 2회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영화상영을 할 때는 1층 휴게실이 딱 찬다).
- 드림시티는 서울역에 주로 머무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휴식공간처럼 인지되고 있다. TV를 보거나 장기를 둘 수 있는 곳, 여유로운 일상에 쉬어가는 곳이다.¹⁶

¹⁶ 2011년 9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부랑인 시설은 총 140개이다(참조 : 보건복지부, 「2011년 부랑인·노숙인 현황 보고서」, p.49). 이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조사가 어려운 것은 종교시설로 되어

밴쿠버 카네기 커뮤니티센터(Carnegie Community Centre) (해외 사례)

- 밴쿠버는 250만 광역밴쿠버(Great Vancouver)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인구 57만의 도시이다. 이민국가로 이루어진 캐나다에서도 동양계 이주민의 비율이 단연 높은 밴쿠버는 동서양의 문화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the most livable city in the world)'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밴쿠버도 현대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빈부의 문제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탈락된 노숙인들이 존재한다. 도심 남쪽에 형성된 차이나타운 주변의 이스트 헤스팅스 거리(East Hastings Ave.와 Mail St.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블록)는 노숙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이들은 도심의 건물 사이나 거리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림 3-6 밴쿠버 카네기센터 외부전경

- 비가 오지 않는 밴쿠버의 여름은 노숙인들이 살기 좋은 계절로서 이들은 커다란 할인점 손수레 안에 온갖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 노숙을 하지만, 비가 오는 겨울철에는 주로 건물의 처마 등에서 노숙을 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캐나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기간, 구직노력 등)이 되어야만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미 거리 노숙에 익숙하거나 자포자기, 집시생활에 대한 나름의 긍정 혹은 마약 등으로 인한 무기력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떨어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련 시설들은 노숙인들의 숙식지원 및 편의(의료, 상담 등)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은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할인점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들의 짐구를 이동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리의 플라스틱 병, 종이 혹은 유리병 등을 수거해서 일정한 벌이를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인데, 대개 이를 통해 약간의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다.

- 그러나 노숙인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밴쿠버의 도심은 거리 노숙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도시 저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싼 방값과 차이나타운의 저렴한 물건값으로 인해 저소득자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노숙과 싸구려 호텔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주로 백인과 남미계), 차이나타운에 오랫동안 살아온 중국출신 노인(영어 소통이 어려움), 노숙인(주로 백인과 원주민 남성)들이 많다.
- 밴쿠버의 메인가(Main St.)와 이스트 헤스팅스가 사이에는 카네기센터(Carnegie Centre)라는 건물이 있다. 바로 노숙인들과 저소득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공공문화시설이다. 카네기센터의 본래 기능은 카네기도서관으로 강철왕으로 잘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가 설립한 도서관이다.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카네기는 그의 부를 이용하여 영미권 국가에 1,509개의 도서관을 지었는데, 밴쿠버에 있는 카네기센터는 그 중의 하나이다. 전신은 도서관으로 시작하였지만, 지역 사회와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카네기센터에는 지역의 주민 즉, 저소득자와 노숙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대개의 커뮤니티센터가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이곳 카네기센터는 밴쿠버시의 사회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¹⁷⁾

- 센터의 건물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도서관, 체육관, 극장, 식당, 컴퓨터실, 각종 모임방 등이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담배, 마약, 술이 금지되어 있어 건물 주변에는 마약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북미대륙은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노숙인들도 길에서는 음주를 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마리화나류의 마약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림 3-7 밴쿠버 카네기센터 휴게실

- 카네기센터의 역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카네기센터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밴쿠버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이들은 주로 다양한 활동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밴쿠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의외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저소득자나 노숙인들 자신들이다. 마약을 하는 노숙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숙의 기로에 서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예컨대, 자원봉사를 하면 30분에 50센트(550원)의 식권이 주어지는데, 하루에 3~4시간씩 자원봉사를 한 후 센터의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다.

외부로 나가면 자선단체에서 무료로 밥을 나누어주기도 하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봉사를 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대개 자원봉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른 자원 봉사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 안에서는 나름의 권위를 갖는다. 자원 봉사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역 봉사를 한 지 20년 이상된 사람들로써 매우 익숙하게 일을 해 나간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밴쿠버 원도심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이 넘친다.

- 자원봉사를 하면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 여러 기관에서 오는 다양한 자선 기부 물품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예컨대, 여행 기회, 극장티켓, 운동경기 티켓 등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자원봉사자 파티는 자원봉사자간의 사교와 대화의 장이며, 이성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들은 상호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생활의 지지를 해주며 그들만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두 번째, 카네기센터는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노숙으로부터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노숙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교육,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위한 기술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숙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원 카네기 센터를 그들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노숙인들의 가난한 이웃들이다.
- 교육방법도 강의식 교육은 거의 없고,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하면 개인 교습(tutoring)을 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데, 학습과정을 보면 한국에

서 보는 것과 다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노숙자임에도 사회적 시각에 주눅 들거나 자기 폐쇄적이지 않고 활달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자와 교습자가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듯이 친숙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연대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세 번째, 커뮤니티 체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카네기센터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작은 체육관을 이용한 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자의 연령상 격한 체육활동보다는 실내 체육 정도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드민턴, 탁구 등은 체력적 소모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운동이다.
- 네 번째, 카네기센터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실제 카네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카네기센터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학, 토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이나 신문을 읽고, 서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하거나 읽은 책에 대해 사랑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도서관을 관리하고 장서를 정리하며, 책을 추천하는 등의 일은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이들은 대개 질문에 대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위 수많은 사설들을 늘어놓는 등의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설이 늘어난다면 주변에서 거들면서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기 일쑤이다.
- 각종 문화예술 동아리는 기본적인 활동기반¹⁸이 된다. 기타동아리, 오카리나 동아리, 신문 제작 동아리, 댄스동아리 등이 있는데, 특별한 강습과

18

<http://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carnegie-centre-arts-and-culture.aspx>
(2013.7.31)

정이 거의 없고 대개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한다. 동아리 안에서 교육과 연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들어 온 사람들이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 이들의 활동은 일상적인 발표회, 파티 등에서 선보이는데, 특히 일년에 한번 하는 지역축제는 아주 중요한 큰 행사이다. 카네기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Downtown Eastside) 지역으로 밴쿠버에서 가장 낙후되었지만, 밴쿠버시는 도시의 원천이라고 지역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밴쿠버시는 도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도심 재개발(DTES)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곳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는 축제, 행사 등을 지원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 도심의 마음축제(Downtown Eastside, Heart of the City Festival)이다.¹⁹ 그림 3-8 노숙인 참여 페스티벌 포스터

그 외에도 건물의 전 층에 있는 로비에는 장기(중국노인들)나 체스 혹은 카드를 하는 노인들이 있어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체스판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밴쿠버 카네기센터의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다시 생각

¹⁹ <http://www.heartofthecityfestival.com/> (2013.7.31)

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우선, 노숙자를 수혜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 도심의 저소득층과 노숙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공동체는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지지하는 자조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밴쿠버 시에서는 시의 예산을 통해 노숙인에게 물적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사려 깊게 살펴볼 사항이다. 이곳의 직원들은 참여자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 혹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활동 등에 대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우대하고 있는데, 매년 최고의 기여자에게 시상하는 등 최고의 시민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층 혹은 노숙인이라는 구별 짓는 호칭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보편적 시민”으로 바라보고 “가난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시민성”을 격려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 **두 번째로 일반적인 공동체와 달리,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공동체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이곳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즉 책, 댄스, 악기, 노래 등의 감성적인 활동이 격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운동이나 활동보다 선호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이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림 3-9 밴쿠버 카네기센터 내부 전경

들은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이 사회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유쾌한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다.

□ 세 번째, 끊임없이 지역 사회와 결합하고자 노력하는 점이다.

- 외부의 자원봉사자나 기부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물론, 지역의 행사나 활동, 축제와 결합하여 밴쿠버의 시민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밴쿠버 사회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카네기센터가 지역의 모든 노숙인을 다 포괄하지 않는다 해도 일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발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NPO법인 사나기다치^{20, 21} (해외 사례)

- 일본 제2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도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슬럼가 ‘고토부키’가 있다. ‘고토부키’는 원래 2차 대전 뒤 항만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쪽방촌으로 번성했으나, 긴 세월이 흘러 많은 도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2004년 인구 6,500명(고령자 50%, 생활보호수급자 80%, 독신남성 95%)의 ‘고토부키’에는 8,000개의 쪽방이 있고, 생산성이 감소되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20 남지현, 2012,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 도쿄의 ‘빈 건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좋은 서울 02, pp.137~146

21 “일 요코하마 대표적 슬럼가가 확 달라졌어요” 한겨레 신문, 2012. 8. 17 경제면

- NPO법인 ‘사나기다치’ 활동은 1983년 ‘홈리스 습격사건’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거처나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출발하였다. 1999년,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 ‘크레이지 살롱’을 오픈하였고, 이후 ‘크레이지 살롱’은 ‘사나기의 집’으로 개명되어 유지되고 있다.
- ‘사나기의 집’은 쉼터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육류냉장창고로 쓰던 것을 식당으로 개조하여 2002년 문을 열어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더불어 일자리 제공의 기회도 되고 있다.
- ‘사나기다치’는 NPO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주, 의료, 취업지원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나기친구들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복지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독사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 아티스트 협력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자립 조건부 아파트 임대, 퇴락한 지역 이미지 변화를 위한 옥상 화단 및 벤치를 만드는 ‘1평짜리 평상만들기’, 자전거 보수사업 등이 있다.
- 또한 2004년 도쿄대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 프로젝트로 사나기다치에 참여했던 ‘오카베 도모히코’대표는 2005년 요코하마 미술축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맞추어 빈방을 호스텔로 여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고토크랩’을 설립하였다. ‘고토크랩’은 빈방의 호스텔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화된 도시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는 ‘가도베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게이오대 및 랫교대와 함께 1년 과정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발표하는 수업으로 지역

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발전 방안 마련 외에도 젊은이들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고토부키’의 ‘사나기다치’, ‘고토랩’ 등 민간 기관들의 네트워크는 고�령화된 도시, 쪽방촌 중심의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있다.

5 **스트리트 와이즈 오페라(Street Wise Opera)²² (해외 사례)**

- 2000년 ‘페시지 데이 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뮤직저널리스트 ‘맷피콕’(스트리트 와이즈 오페라 창설자이자, 현 CEO)이 당시 정치가의 홈리스 비하발언에 대항하여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숙인들과 오페라를 만들었고,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 시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스트리트 와이즈 오페라’가 탄생되었다.
- 이 단체는 음악을 도구로 노숙인의 삶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숙인 센터가 실질적 지원을 한다면, ‘스트리트 와이즈 오페라’는 자신감과 자긍심,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돕는다.
- 노숙인과 노숙인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음악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외부에서 노숙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1년 기준 영국 전역의 11개 노숙인센터에서 500여명의 노숙인 참여자가 주간 음악 프로그램과, 노숙인들이 출연하는 오페라 작품을 올리

22

2011 문화예술네트워크 심포지움자료, pp.7~21, 인천문화재단

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시스템에 예술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총 운영비의 55%를 공공기관과 기업의 펀딩으로 운영하고 있다.

- 스트릿 와이즈는 예술가와 노숙인의 공동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예술파트너는 아티스트, 티켓, 연습장소,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 스트릿 와이즈는 노숙인 생활이나 직면한 다른 이슈, 혹은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페라의 드라마틱한 캐릭터, 스토리에 집중한다. 오페라의 플롯과 스토리, 코러스와 아리아에 대해 배우고, 가사를 배우고 실연하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다.

IV 노숙인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타당성 조사

- 1 조사 개요
- 2 노숙인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 3 노숙인 지원 활동가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 4 노숙인 문화예술 참여자 및 문화예술 지원 활동가 인터뷰

IV 노숙인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타당성 조사

1 조사 개요

1.1 조사배경 및 목적

- “노숙인들의 문화예술창작공간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 노숙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 문화예술창작공간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할 때, 연구의 타당성이 성립될 수 있다.

1.2 조사 대상

- 노숙인 및 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가(운영/현장지원가 및 상담사)

1.3 조사 설계

- 조사 기간 : 2013년 6월 10일~7월 5일
- 조사 방법 : 현장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유효 표본수 : 노숙인 102명, 활동가 48명

조사 내용

○ 노숙인 대상

표 4-1 노숙인 설문 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이유
일반 현황	성별·나이	
	노숙 시기/주거 현황	'노숙'이란 외부에 알려진 거리노숙만이 아닌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모두 일컫음. 이에 설문 응답자들의 '노숙'의 시기와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노동 시간	노숙인들의 노동환경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개인마다의 노동시간이 차이가 있음. 20~60대 노숙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더불어 노동시간은 여가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여가 시간 및 여가 활동	문화예술활동 및 공간의 필요성은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조사를 시도함. 현재 노숙인의 평균 여가 시간 및 여가시 주로 하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함.
문화예술 관심도	과거/현재 문화예술활동 여부	문화예술활동의 경험 유무는 이후 문화예술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침.
	문화예술활동 가치	노숙인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함.
문화예술 창작 공간 필요도	문화예술창작 공간의 필요성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설립될 때, 이용도를 예측하고자 함.
	희망 프로그램	공간 조성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 활동가 대상

표 4-2 노숙인 지원활동가 설문 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이유
일반 현황	성별·나이	
	지원 활동 현황	활동시기나 역할에 따라, 노숙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도 있어서 기본정보로 조사함.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지원 현황	활동가의 노숙인 문화예술 지원 경험도를 확인함.
	문화예술 필요성 및 효과	노숙인 지원활동가로서 문화예술 활동이 노숙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문화예술 창작공간 필요도	문화예술창작 공간의 필요성	노숙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가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에 공감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함.
	희망 프로그램	공간 조성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설문 참여 현황

○ 노숙인

- 인원 : 102명(남자 98명/ 여자 4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	16	32	30	18	4	102

- 노숙기간

6개월 이내	6개월~2년	2년~5년	5년 이상	기타	합계
15	23	16	39	9	102

○ 활동가

- 인원 : 48명(남자 29명/여자 19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4	13	20	8	3	48

- 활동 기간

1년 이내	1년~3년	3년~5년	5년 이상	합계
17	13	7	11	48

-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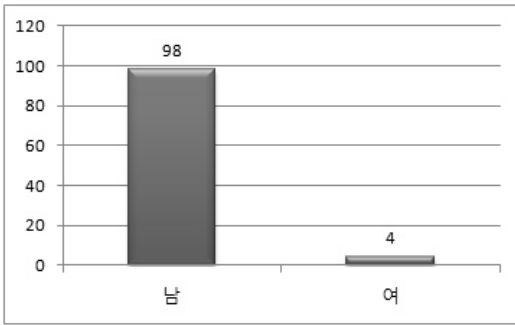
운영 지원	현장-실무	현장-상담	기타 (자원활동, 공공근로등)	합계
16	8	7	17	48

2 노숙인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2.1 일반 현황

2.1.1 성별

- 노숙인은 생활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번 조사에서도 96.1%가 남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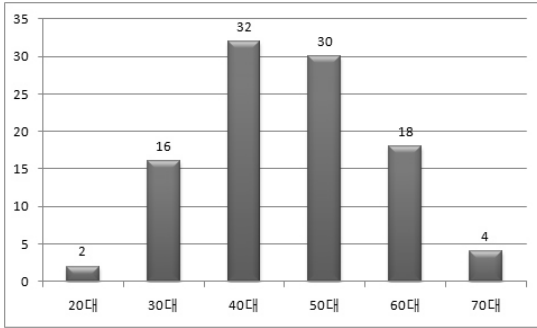
성별	빈도	퍼센트
남	98	96.1
여	4	3.9
합계	102	100.0

그림 4-1 노숙인 성별 현황

2.1.2 나이

- 조사결과 노숙인의 연령분포에서 40~50대가 가장 많고, 30대보다도 60대가 1.9% 높다. 타 조사²³에서도 노숙인의 연령분포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이번 조사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 40~50대의 노숙인들은 경제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이지만, 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면 매우 극단적 빈곤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3 보건복지부, 「2011년 부랑인·노숙인 현황보고서」, pp.6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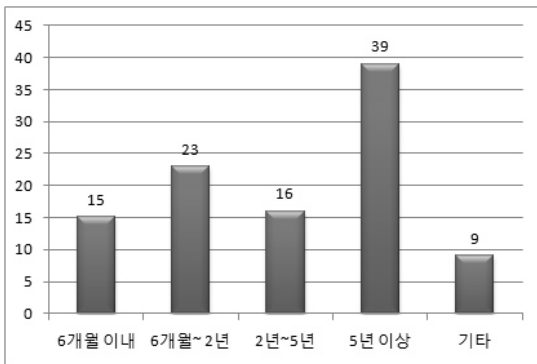


나이	빈도	퍼센트
20대	2	2.0
30대	16	15.7
40대	32	31.4
50대	30	29.4
60대	18	17.6
70대	4	3.9
합계	102	100.0

그림 4-2 노숙인 나이 분포

213 노숙 기간

- 노숙 기간에 있어 5년 이상의 장기노숙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년 이내의 경우 유동성이 있다면, 장기노숙의 경우 새로운 문화형성이 필요한 층이다. 이들에게 있어 의식주 해결만으로는 현 사회 노숙인의 문제를 푸는데 한계를 가진다.



노숙기간	빈도	퍼센트
6개월 이내	15	14.7
6개월~2년	23	22.5
2년~5년	16	15.7
5년 이상	39	38.2
기타	9	8.8
합계	102	100.0

그림 4-3 노숙 기간 분포

- 주거는 설문 참여자들의 노숙인으로서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된다.
- 노숙의 경우 거리 노숙 외에도 숙소를 가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구조로 인해 이후 거리노숙의 잠존율이 있을 경우, 노숙인의 위기계층이라 하여 노숙인 범주에 두게 된다.
-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엽가숙소(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이용자가 38.2%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이용자도 8.8%가 되었다. 설문 조사 대상 노숙인 중에서도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참여자들의 경우 여러 활동으로 자존감이 높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 엽가숙소나 임대주택 이용자는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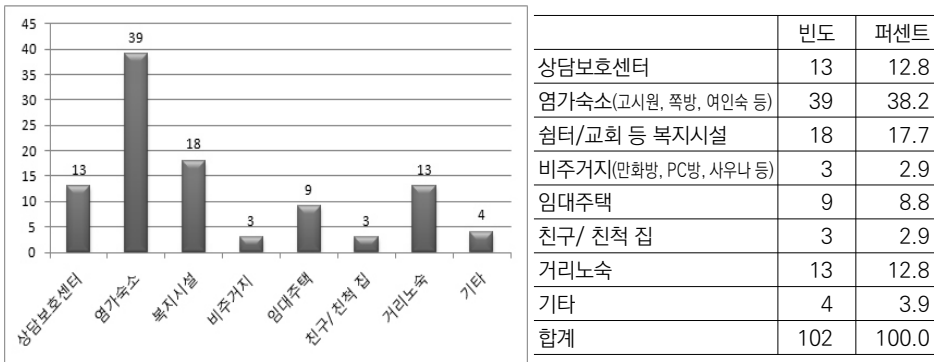


그림 4-4 노숙인 잠자리 현황

월간 노동시간

- 노동시간의 경우 없거나 10일 이하가 52.9%로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 외에 여가시간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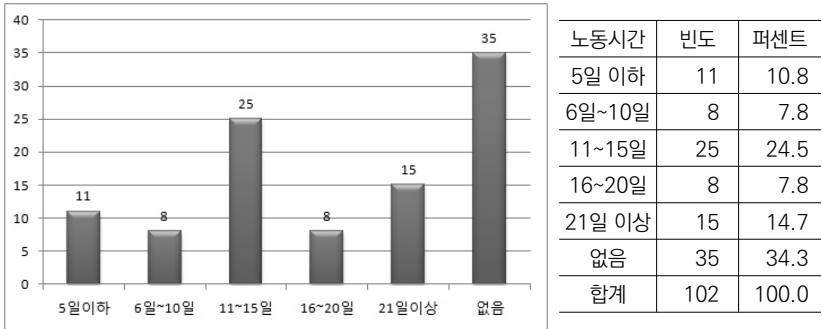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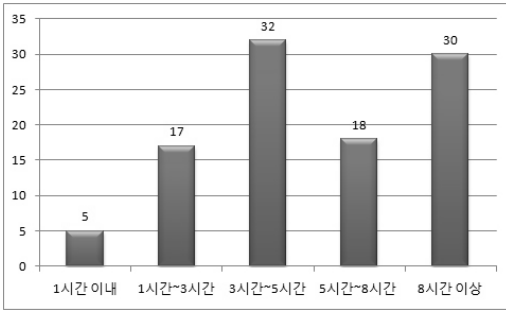


그림 4-5 노숙인 월간 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여가 활동

- 하루 중 여가시간은 5시간 이내가 52.9%, 5시간 이상이 47.1%로 조사되었다. 50% 가까운 참여자들이 여가시간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낸다는 의견에 43.1%가 응답하였고, 20.6%가 독서나 바둑 등의 혼자 하는 취미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TV시청, 수면, 컴퓨터, 혼자 하는 취미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 노숙인들은 노동시간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지만,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 이후 여가시간이 5시간 이내와 이상인 것으로 나누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교차분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가 시간	빈도	퍼센트
1시간 이내	5	4.9
1시간이상~3시간이내	17	16.7
3시간이상~5시간이내	32	31.4
5시간이상~8시간이내	18	17.6
8시간 이상	30	29.4
합계	102	100.0

그림 4-6 노숙인 여가 시간

여가 활용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TV시청	44	43.1	20	16.7
수면	8	6.9	20	16.7
혼자하는 취미활동(독서, 바둑 등)	22	20.6	17	13.7
컴퓨터	6	5.9	19	15.7
함께하는 취미/교육활동(예술동아리, 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5	3.9	8	4.9
학습(학원, 인문학 교육 등)	6	5.9	8	4.9
기타	11	10.8	10	6.9
합계	102	97.1	81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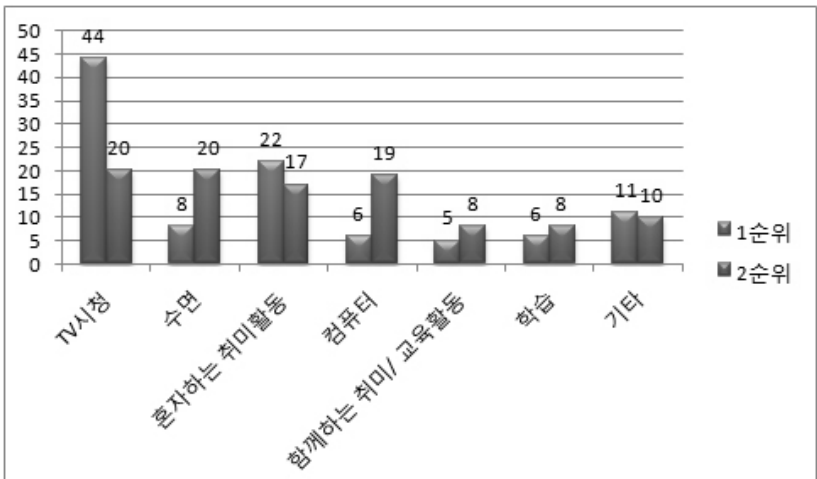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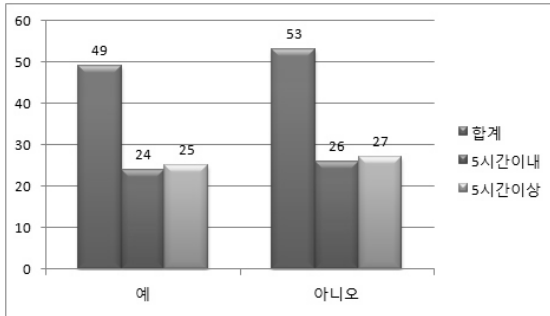


그림 4-7 노숙인 여가 활동

- 과거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있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48% 대 52%로 비슷하게 나왔고, 여가시간에 비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예	49	48.0
아니오	53	52.0
합계	102	100.0

그림 4-8 노숙인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

- 경험자 중에서 '노래'를 해본 사람이 36.8%로 가장 높고, '연극'이 26.3%를 차지하였다.
- 연극, 악기연주를 해본 사람의 경우 현재 연극프로그램, 품물패 참여자들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있다. 반면 그들의 현재 경험이 이후 문화예술활동의 다양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외에도 사진, 밴드, 춤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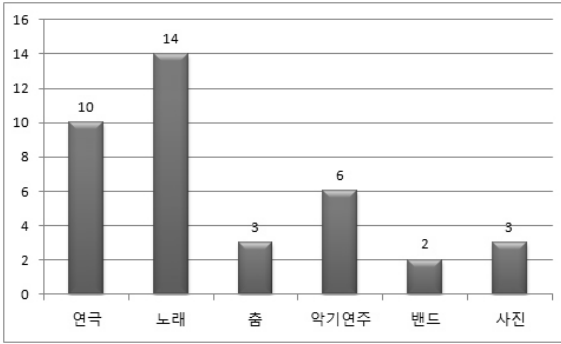


그림 4-9 노숙인 문화예술 경험 현황

	빈도	퍼센트
연극	10	26.3
노래	14	36.8
춤	3	7.9
악기연주	6	15.8
밴드	2	5.3
사진	3	7.9
합계	38	100.0

2.2.2 현재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여부

- 현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9.6%이다. 이중 여가시간의 차이가 문화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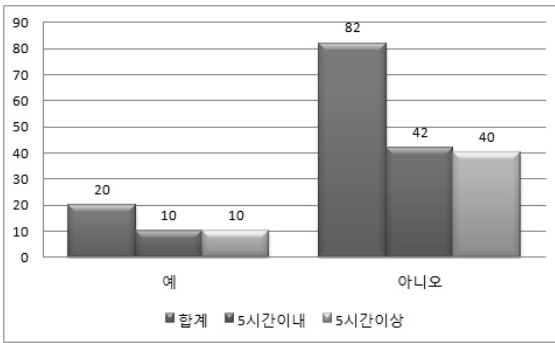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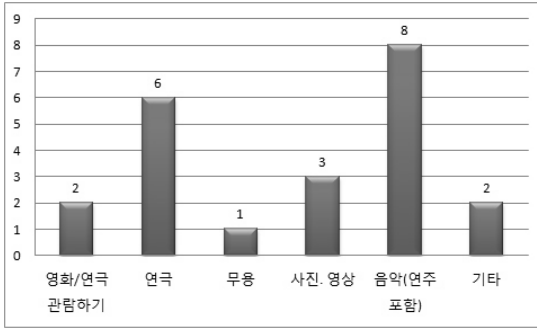
그림 4-10 노숙인 현재 문화예술활동 참여 유무

	빈도	퍼센트
예	20	19.6
아니오	82	80.4
합계	102	100.0

- 현재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는 연극과 음악이 높았고, 직접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화/연극의 관람은 문화예술활동이라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작용하였다.²⁴

24

인터뷰 과정에서 연극, 인문학 팀의 경우 연극/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현



	빈도	퍼센트
영화/연극 관람하기	2	9.1
연극	6	27.3
무용	1	4.5
사진, 영상	3	13.6
음악(연주 포함)	8	36.4
기타	2	9.1
합계	22	100.0

그림 4-11 노숙인 참여 문화예술활동

2.2.3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친구를 사귀게 된다’(25.5%)와 ‘일상의 활력’(19.6%)에 가장 높은 의미를 부여하였고, 사회적 필요가치인 자존감 회복(18.6%), 성취감(12.7%)은 2순위로 주로 응답을 보였다. 이것은 노숙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단순한 개인취미를 넘어 타인과 예술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현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17명의 응답에서는 성취감(35.3%)과 일상의 활력(29.4%) 그리고 자존감 회복(1순위23.5%, 2순위 41.2%)에 가치를 두었다.

재 문화예술활동에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노숙인 전체 1순위		노숙인 전체 2순위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1순위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친구를 사귀게 된다	26	25.5	12	11.8	1	5.9	1	5.9
예술 활동을 통한 성취감 형성	12	11.8	13	12.7	6	35.3	1	5.9
예술 체험의 기회	6	5.9	10	9.8	1	5.9	2	11.7
자존감 회복	11	10.8	19	18.6	4	23.5	7	41.2
일상의 활력	20	19.6	12	11.8	5	29.4	5	29.4
잘 모르겠다(없다)	13	12.7	2	2.0	0	0	1	5.9
기타	3	2.9	2	2.0	0	0	0	0
무응답	11	10.8	32	31.4	0	0	0	0
합계	102	100	102	100	17	100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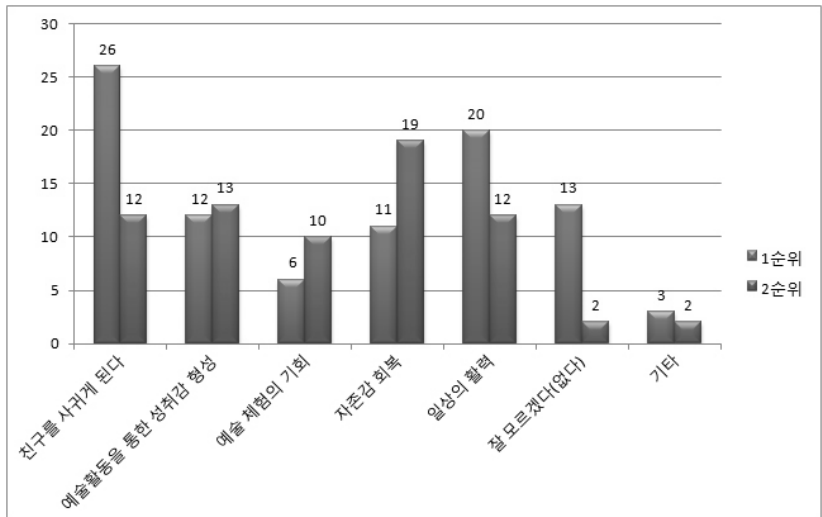


그림 4-12 노숙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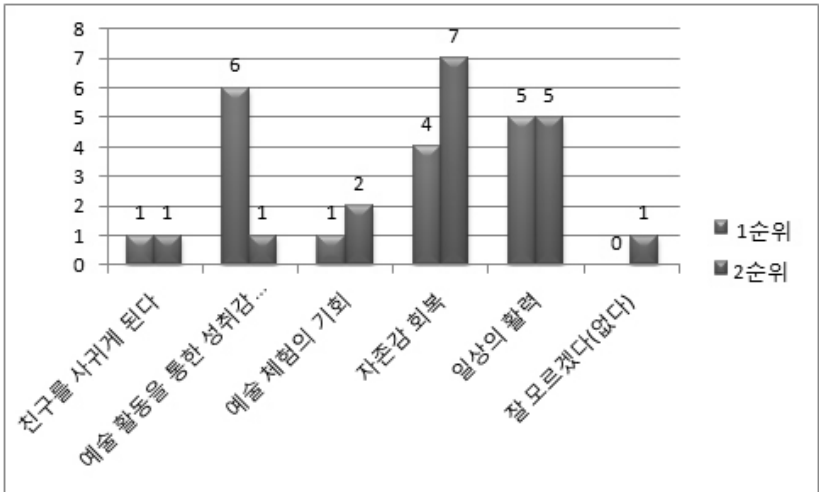


그림 4-13 노숙인 문화예술 참여자 대상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

- 흥미로운 것은 과거 문화예술활동을 해봤지만, 현재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이 달랐다.
-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자신을 독려해줄 친구와 새로운 삶의 활력을 기대한다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한 자신의 변화인 성취감, 자존감 회복을 높이 인정하는 것이다.
-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친구’관계에서도 매우 의미있게 응답하였다.
-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노숙인들의 경우 가족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의 단절이 높기 때문에, ‘친구’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노숙인들의 삶이 보호·관리 차원에

서 집단화되거나, 개별 관리로 되다보니 노숙인들끼리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예술을 통한 동료관계가 현재의 허무함과 외로움, 우울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반면,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라는 것을 단지 만날 수 있는 대상을 넘어 소통을 하는 대상으로 본다. 즉 문화예술을 통한 ‘친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동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 ‘일상의 활력’에 있어서도 노숙인들의 경우 여가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여가 시간이 생기면 TV시청이나 혼자하는 취미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문화예술 활동은 무료한 일상에 활력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높은 것은 경험하지 않은 예술에 대한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음이라 여겨진다.

23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관심도

231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전의 질문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이는 것이다.
- 기존의 공간들이 노숙인들의 보호·관리 차원의 지원기관이었다면, 문화

예술커뮤니티 공간이 갖는 의미는 노숙인들의 공공적 소통의 공간으로 이해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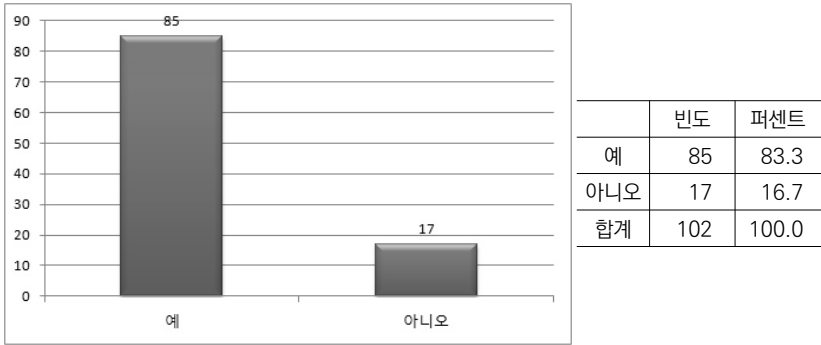


그림 4-14 노숙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필요

2.3.2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참여 여부와 희망 프로그램

-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9.6%였다(여가시간은 5시간 이상/이하 모두 50% 가까이 참여로 응답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위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48%,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19.6%에 머문 것에 비해 이후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매우 높은 참여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 한편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도가 약간 낮게 나온 것은 아직은 프로그램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25

인터뷰에서(전원조 6월10일, 전재곤·허영준 6월19일) 말하기를,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면, 연습실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며, 다른 시간에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연습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카페에서 모인다거나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상담센터의 빈 곳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센터 업무시간을 피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가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필요성을 갖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보인다.

-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 또한 참여자의 경험 유무가 처음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노래, 연극, 악기, 사진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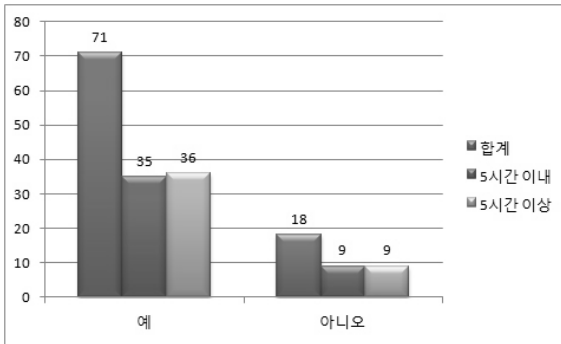


그림 4-15 노숙인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참여 여부

	빈도	퍼센트
예	71	69.6
아니오	18	17.7
무응답	13	12.7
합계	1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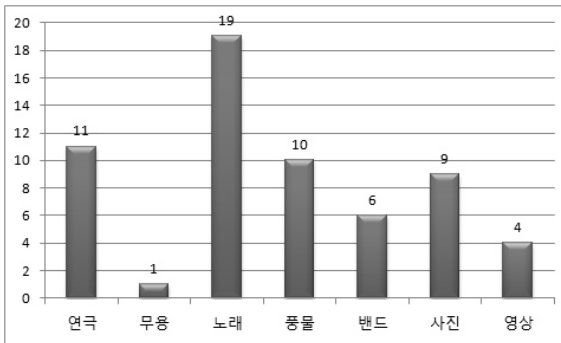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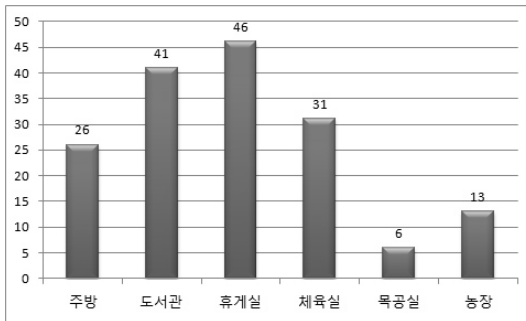


그림 4-16 노숙인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연극	11	10.8
무용	1	1.0
노래	19	18.6
풍물	10	9.8
밴드	6	5.9
사진	9	8.8
영상	4	3.9
합계	60	58.8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에 필요한 시설

-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기타 시설은 주관식으로 작성하였다. 28.2%가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도서관도 25.1%로 꽤 높게 나왔다. 기존의 노숙인 지원센터에 도서, 휴식공간이 있지만 매우 작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노숙인들이 충분히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기에, 이러한 공간의 마련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사전에 연구원들간의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숙인들이 '식사 제공'의 필요성 때문에 '주방·식당'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식당은 16%에 그쳤다. 이는 참여자 역시도 식사를 제공하는 다른 외부공간들이 있기에,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기존의 공간과 다른 구조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목공실과 농장에 대해서도 10% 이하지만 제안이 나왔다.



공간의 기타 시설	빈도	퍼센트
주방	26	16
도서관	41	25.1
휴게실	46	28.2
체육실	31	19
목공실	6	3.7
농장	13	8
합계	163	100

그림 4-17 노숙인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필요 시설

노숙인 지원 활동가의 문화예술 필요성과 공간 타당성

3 1 문화예술 관심도

3 1 1 문화예술 지원 활동 경험 유무

- 다시서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숙인들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노숙인 지원센터는 현장업무와 운영지원이 번갈아 이루어져 각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에 14.6%는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졌다면, 33.3%는 참여자의 결과물을 통해 문화예술이 노숙인의 자존감 및 자립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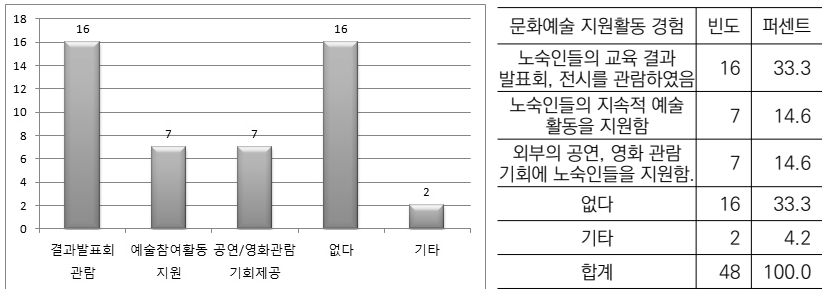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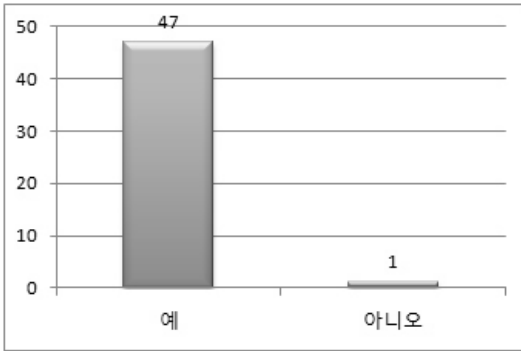


그림 4-18 지원 활동가 문화예술 경험

3 1 2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필요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97.9%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활동가의 경우, 문화복지의 필요는 공감하지만, 현재 노숙인들에게는 다른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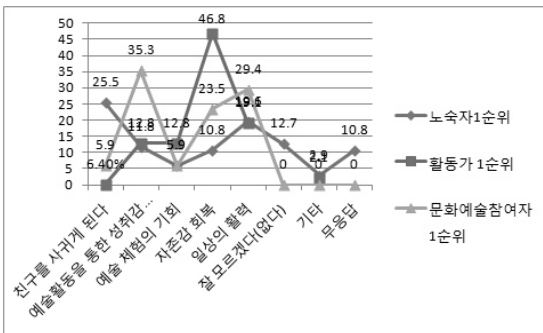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예	47	97.9
아니오	1	2.1
합계	48	100.0

그림 4-19 지원활동가 대상 문화예술 지원 필요

-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이 '자존감 회복'으로 46.8%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일상의 활력'(19.1%)이었다. 2순위에서는 '성취감 형성'(27.7%), '일상의 활력'(27.7%)이라 응답하였다.
- 흥미로운 것은 노숙인들의 경우 '친구를 사귀다'(25.5%)가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일상의 활력'(19.6%)이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노숙인들은 1순위가 '예술활동을 통한 성취감'(35.3%), 2순위가 일상의 활력(29.4%)을 준다였다. 반면 지원활동가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참여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거는 기대가 컸다.²⁶

26

아래 그래프는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원 활동가와 노숙인, 문화예술참여자를 % (각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로 하여 비교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친구를 사귀게 된다	3	6.4	7	14.9
예술 활동을 통한 성취감 형성	6	12.8	13	27.7
예술 체험의 기회	6	12.8	4	8.5
자존감 회복	22	46.8	7	14.9
일상의 활력	9	19.1	13	27.7
기타	1	2.1	3	6.3
합계	47	100	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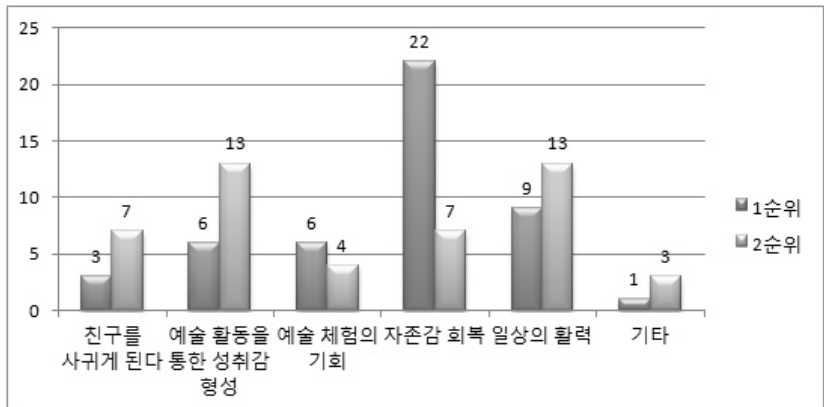


그림 4-20 지원활동가 대상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3.2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관심도

3.2.1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및 희망 프로그램

-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9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연극, 노래, 풍물 등이 있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반면, 문화예술 지원활동은 공감하지만,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3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의견에는 프로그램과 달리 공간이 설립될

때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활에 예산확보를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그럼에도 많은 인원들이 공간의 필요성에 찬성으로 응답한 것은 노숙인 지원 공간마다 기능이 있는데, 현재 자활 지원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숙 자활을 위한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사회적 문제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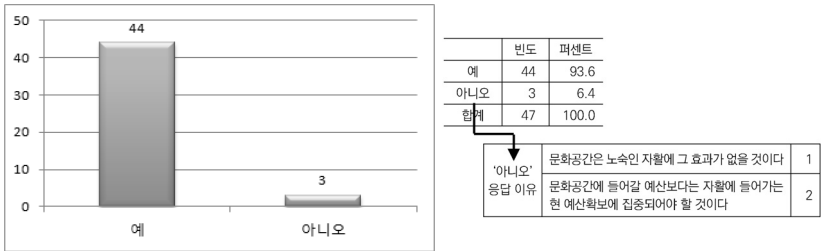


그림 4-21 지원활동가 대상 공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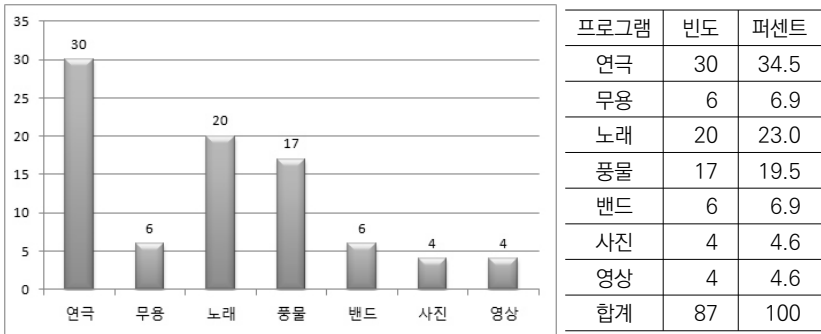


그림 4-22 지원활동가 대상 희망 프로그램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에 필요한 시설

-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기타 시설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8.9%가 체육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휴게실이 25.8%로 높게 나왔다. 농장에 대한 제안도 10.2%로 나왔다.
- 노숙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기에 체육실을 통한 체력단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많은 반면, 흥미롭게도 노숙인의 경우, 체육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9%에 머물렀다.
- 한편 주방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의 식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할 것이라는 초기 예상과 달리 노숙인의 경우에는 16%였고, 활동가들은 12.4%에 그쳤다. 노숙인들의 숙식이 문제가 될 것이며, 문화예술 커뮤니티공간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연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면, 우려했던 것보다 노숙인들의 필요도는 낮았고, 활동가 역시도 공동 식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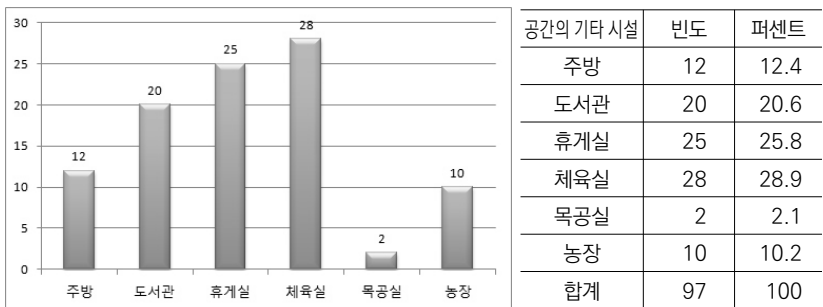


그림 4-23 지원 활동가 대상 공간 필요 시설

노숙인 문화예술 참여자 및 문화예술 지원 활동가 인터뷰

4.1 조사 배경

- 객관식 문항지에서 답지 못할 내용을 중심으로 4명의 참여자와 7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서면 질문을 시행하였고 이중 3명의 참여자와 5명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인터뷰 및 서면 질의에 응답해 준 3명의 참여자와 5명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다.
 - 전001 : 연극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2년
 - 허00 : 풍물 참여자, 참여 5년
 - 전002 : 풍물 참여자, 참여 4년
 - 우00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9개월, 현 연극프로그램 지원
 - 북00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6개월. 현 영화프로그램 운영
 - 남00 :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상담원 13개월, 성프란시스 대학 자원활동 3년
 - 지00 : 노숙인 지원 상담원 40개월, 연극프로그램 지원 상담원
 - 전003 : 성프란시스대학 사무국장 18개월

4.2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4.2.1 문화예술활동의 효과

- 문화예술활동이 노숙인에게 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전001 : 취미로 시작한 연극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가장 큰 것은 살면서 끊임없이 드는 허탈감이다. 연극을 하다보면 그것을 잊게 된다.

잠시라도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성취감이 생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허00 : 제가 1년여 몸이 안 좋아서 풍물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풍물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놀이터에 가서 본인이 배운 가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라고.. 저는 그 동료애가 참 좋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챙겨주겠습니까? 노숙인들은 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배타적입니다. 잘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풍물을 함께하다 보면 동료애가 중요해집니다.

전002 : 풍물은 삶의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다보면 전체가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하죠. 자신을 낮추고 노력하는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오래가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력으로 몇 년째 함께 하는 동료애가 생기면, 같이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 문화예술활동을 즐기고 있는 노숙인에게 예술은 성취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준다. 그리고 동료애를 만들어준다. 한편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대를 배려하고 어울리는 긍정적 소통의 방식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워간다. 이렇게 형성되는 자아 효능감은 자존감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4 2 2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전001 : 문화예술공간이 생긴다면 그곳에서 노숙인들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내고 삶의 의욕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활력을 가질 것이다.

허00 : 일단 풍물팀은 연습공간이 없어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연

습하고 싶을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더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인원들도 늘어날 수 있고, 돈독한 관계도 맺어질 것입니다. 노숙인들은 풍물로 프로를 꿈꾸기보다, 함께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같이 어울리며 대화하고, 쉬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노숙인이 스스로 갖는 자존감은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전002 : 노숙인들이 문화예술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건 다를 거고, 그것이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소모임들로 만들어진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서울역 노숙인들 중에 가끔 보면 기타를 치는 사람,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아마 노숙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긴다면 여러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 노숙인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라고 이야기하였다. 노숙인들이 스스로 필요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대일 것이라고 믿는다. 노숙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인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들이 가진 각자의 욕구, 재능이 무한하게 보일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노숙인들에게도 많은 가능성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43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노숙인 지원 활동가

431 기존 노숙인 지원의 한계

- 현재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에서 아쉽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남00 : 몸이 아프시거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이 많다보니 여가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

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술에 의지하거나 PC방에서 오락,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종종 복지관이나 상담소에서 영화보기, 도서공간 등이 마련되지만, 참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떨어지는 듯 합니다.

지 00 :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노숙인의 형성 원인들이 다 다른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원한다기보다는, 공통되고 기본적인 지원에 국한된 느낌이다.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개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003 : 현장에서 의식주 지원을 보면서도 노숙인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인문학 과정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끌어올리는 힘을 본다. 25명 중 모두 성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참여자에게 큰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기존 지원의 한계, 지속적 관계와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문화적 지원이 필요함을 느낀다.

우 00 : 각자 관심있는 분야에 참여한다고 보기보다는 짜여진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를 하고 있어서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있다.

- 기존의 노숙인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는 노숙인 개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지원이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숙인 수는 줄지 않았고, 노숙인들의 알코올 문제, 투기성 게임에 삶을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따라서, 노숙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한편 인터뷰어들은 인문학, 연극프로그램의 지원에서 만들어지는 주체적 참여와 관계형성 지원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 문화예술활동이 노숙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남 00 : 참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품지원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자기 삶의 동기 부여가 아닐까 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주변의 이들을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의 반복이기에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봅니다.

지 00 : 연극프로그램에 상담사로 함께 참여하면서, 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담사로서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 속에 보이는 상처와 이유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 활동은 그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서로간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자기 속 상처가 드러나고 그것에 부딪히고 해결해 나갈 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된다.

우 00 :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를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의식주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부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노숙영역에서 일반사회로 재편입 하려면 의식주 이상의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003 :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문학의 경우 연극이나 영화 관람을 하게 된다. 교실강의와 이러한 현장학습을 볼때, 예술 활동은 기폭제가 되는 거 같다. 현장학습에서의 경험은 오랜 기억을 주고, 큰 영향을 미친다.

복 00 : 평소 놓치기 쉬웠던 문화생활에 대한 충족이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과 삶의 동기부여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때 문화예술활동은 노숙인들이 함께 하는 동료를 통해, 그리고 예술작품의 관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에 다른 지원보다도 문화예술이 노숙인들의 삶에 기폭제가 된다.

433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남 00 : 낮 시간 돈 없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 공간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책을 읽는 곳’, ‘차를 마시는 곳’, ‘고민을 털어놓는 곳’ 등 그 분위기에 맞게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지 00 : 문화환경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이다. 문화예술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표현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

전003 : 인문학 교실이 없었을 때와 생긴 이후 간에는 매우 큰 변화가 있다. 공간이 생기니 사람들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이 없을 때도 이곳에 와서 머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면 좋을 것이다. 그 공간은 노숙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 00 : 현재 연극프로그램의 경우는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센터 내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員들이 자신의 공간이 있다면 현재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노숙인을 위한 공간은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문화적 권리가 될 것이다. 문화 향유를 위해서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문화공간이다. 문화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노숙인들의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434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의 운영

-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을 꾸밀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있다면?

남 00: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즐겁다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삶이 즐겁다'라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것과 같고, '살고 싶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힘든 현실 상황을 주변 사람들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서울역 광장에서 무심코 스쳐가는 인연과 달리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서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기에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게 되지요. 이 관계는 서울역 거리에서는 쉽게 형성될 수 없는 또 다른 사회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 00: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노숙인의 문제는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며, 사회, 정서, 가족문제까지 복합적이다. 이들의 삶의 동력은 일자리를 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의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그 책임을 수행할 사회

적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새로운 시각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 00 : 공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참여할 만한 여러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끌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2차로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학 공간을 보면서 이들에게 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컴퓨터 서류업무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숙인에게 거리에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던 순간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면,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은 새로운 가치와 관계를 만들어 준다.

복 00 : 노숙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우 00 :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하지만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이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처럼 고착화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이 지향해야 할 것은 노숙인들의 필요를 잘 인식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그 공간의 문화적 필요와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노숙인 지원기관들이 시혜성 지원, 관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노숙인들의 필요에 기준을 두기보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고, 집단적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된다. 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인 만큼 이 공간은 노숙인들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혹은 동료들과 함께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성과 역할

- 1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의미
- 2 시민문화예술의 가치
- 3 노숙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효과
- 4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역할

V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성과 역할

1 노숙인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의미

- 우리 사회는 이제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비정규직의 양산 등에 의해 누구나 쉽게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실업자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노숙인이 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노숙예비군인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한편으로 사회적 배제를 형성한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경제적 배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 및 행동양식에 참여할 수 없는 문화적 배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복지 혜택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제도적 배제 등 다면적인 성격을 띤다. 결국 노숙인은 주거, 보건의료, 취업, 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노숙인은 성실한 모습으로 노동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 결국 노숙인의 삶의 모습은 ‘도시 속의 섬’ 같다. 그 섬은 육지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섬에는 다리가 놓여야 한다. 그 교류와 다리를 놓는 작업이 바로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을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하루빨리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노숙인이 ‘도시속의 섬’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웃이 되길 기대한다.²⁷

27

임영인,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배제, 노숙인과 노숙인의 인권”, 당당뉴스, 2007. 1. 20

11 노숙인 문제를 다시 보기

111 사회 구조적 요인

-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숙의 원인에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경쟁력의 부재, 취약성의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크다. 국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위기, 이로 인한 실직가정의 양산과 계속되는 빈곤은 가족 구성원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킨다. 이 구조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며 노숙인은 그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112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 4장 조사에서도 살펴보듯이 10일 이상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47%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활동을 하는 노숙인 역시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하기 어렵고 노숙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한편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하는 일은 1차 산업의 형태가 많다.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노동가치 또한 낮게 평가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어릴 때부터 없었고, 다양한 이유로 학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의 노동환경 마련만으로 노숙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113 노숙의 만성화

-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서 40세 이상 노숙인 비율은 82.3%이고, 이중 60세 이상도 21.5%를 차지하며 고령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2년 이상 장기노숙이 5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 다시서기 사업 보고서」에서도 첫 노숙시작 시기로부터 4년 이상 노숙을 한 노숙인이

71.8%에 이르고 있어 만성노숙인구가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⁸ 따라서 과거 노숙인의 문제를 IMF로 인한 실업과 가정 파괴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용 지원과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노숙인 만성화에 대한 새로운 노숙인 문화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2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

12.1 노숙인도 시민이다

- 이제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닌 노숙인도 시민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임영인 신부의 이야기처럼 '노숙인'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으며, 노숙이라는 상황에 처한 시민이 있는 것이다.
- 김수영은 노숙인에 대해 '보편인권체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권'이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규범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다수자 집단이 노숙인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노숙인에게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혜택이 제한되고 있으며, 규제와 통제중심의 행정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²⁹
- 3장 벤쿠버 카네기 커뮤니티센터의 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캐나다가 가진 다문화, 계층에 대한 동등한 인권과 복지의 출발에는 모든 사

28 노숙인 만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 부랑인, 노숙인 현황보고서」에서도 응급 잠자리와 노숙인쉼터의 장기 이용의 증가 및 고령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함.

29 김수영, 2012, “보편인권체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 노숙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3호, pp.5~38

람은 현재 그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할 시민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것이 사회에 흐르는 기본 전제였다는 점이다.

-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사회 시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를 같이 살고 있는 노숙인 또한 시민으로서 그 권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1 2 2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로서의 노숙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21세기 한국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문화 복지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삶의 의미 상실, 소외 등의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의 향상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에너지가 된다. 한편 다양한 매체는 각자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며, 삶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현재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⁰
- 노숙인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며, 여가시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채워주는 TV는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자존감,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30 이상훈, 2013, “즐거움 사회, 공공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자!”, 「이슈와 진단」, No. 105, 경기개발연구원, pp.1~4

- 2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2012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은 ‘노숙인 등’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권 보장을 인정하였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노숙인 대책에 대한 행정부간, 민간간의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숙인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미약하다. 노숙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 제공이 필요하다.

123 ‘지지’와 ‘관계’가 중요하다

- 현대사회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행복 요인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가족, 친구, 이웃은 그만큼 중요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행복을 찾게되는 목적이기도 하다. ‘나’를 버텨줄 이들이 모두 없다면, 그리고 모두가 ‘나’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노숙인이 있다.
-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해체이다. 실직 및 사업 실패, 가족해체, 부채 및 신용불량이 78.2%에 이른다. 이미 이들은 도와줄 모두에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다. 현재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가 없다. 또한 노숙인들의 경우 결혼가정의 형태가 43.7%가 될 정도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경험도 미약하다.³¹
- 4장의 설문 조사에서도 문화예술을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은 노숙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도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었고,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인터뷰에서도 허00는 문화예술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는 나를 챙겨주는 동료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연극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가장 가치있게 보는 것은 강사

31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 「2012다시서기 사업보고서」, pp.306~307

와 참여자, 자원활동가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 노숙인에게 같은 공간에서 그들을 지지해 줄 다양한 인간관계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2 시민문화예술의 가치

2.1 시민문화예술의 의미

-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다. 과거 문화예술은 고급예술로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원 역시 예술창작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교육의 확대, 산업의 발전, 예술의 다양성은 문화예술의 시장을 확대하였고, 문화정책 또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편에서 시민 속에 살아 숨쉬는 극장, Applied Theatre, 생활/축제 속 예술 등으로 나타나 예술의 참여대상, 예술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 21C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중요성 확대, 문화예산의 증가, 문화복지의 등장,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등 문화예술이 생산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의 예술로 예술의 대상, 가치, 정책이 변화, 확대되고 있다.
- 시민문화예술이란 ‘시민’이 주체이자 자발적 참여에서 출발하며, 모든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화복지의 필요인 것이다.
- 시민문화예술은 관람의 기회 확대와 참여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관

람의 기회 확대'는 찾아가는 극장, 문화바우처 티켓 등을 통해 소득이나 거리적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 관람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문화예술의 관람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늘지 않고, 찾아가는 공연 역시도 작품에 따라 관객들의 참여도가 달랐다.

- 문화예술의 시민 참여는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과 맞닿아 있다.
- '생활문화예술'이란 전통속에 살아 숨쉬는 일상속 문화예술을 다시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생활예술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화되어가는 삶에서 문화예술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끄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고, 이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참여는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가 만들어졌다.
- 문화예술교육은 '경험의 연속적인 재구성'을 통한 개인 성장의 과정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듀이에서 출발한다. '행함을 통한 배움(learn by doing)의 개념을 핵심으로 다양한 예술과 놀이를 통한 체험으로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험으로의 예술(Art as Experience)' (1934)에서 "예술은 바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예술교육은 예술가 양성을 위한 도제적 전문기능교육을 넘어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흥미를 통한 시민의 참여와 성장이며, 미적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다.³²

32

김병주, 2011,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 프락시스, p.10에서 재인용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

-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심리적 치유를 주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스트레스의 절감 효과를 주며,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³³
- 맥신 그린³⁴은 예술교육이야말로 다양한 미적 체험과 자극, 인식을 통해 개인의 상상력, 균형적인 세계관, 비판적 사고, 협동력, 자기 인식과 성찰 등의 지극히 소중한 창조적, 인성적,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역설하였다.³⁵
-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참여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성취감을 가질 뿐더러, 일상과 다른 창조작업을 통해 형성된 자존감, 그리고 타인과 조율을 통해 만들어 가는데서 오는 자기 효능감, 같은 취미에서 연결되는 건강한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수용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로 확대되어 주체적, 자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총체적 과정과 관계 속에서 시민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3

노숙인에게 문화예술활동이 주는 효과

- 시민문화예술활동이 노숙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그리고 이전 연극프로그램의 경험에 비추어 효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33 이상훈, 2013, “즐거운 사회, 공공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자!”, 「이슈와 진단」, No. 105, 경기개발연구원 p.1

34 Maxine Greene은 현대 예술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온 철학자이며, 현재 링컨센터 인스티튜드 철학고문으로 있다.

35 김병주, 2011,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 프락시스, p.10에서 재인용

자아 존중감

-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한가,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반응에서 느끼는 지각상태로 의미된다.³⁶
- 일반적으로 노숙인은 노숙 생활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 소외와 우울, 분노와 좌절, 동기 저하와 무기력 등의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표현된다.
- 이번 조사에서 문화예술참여자의 경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에 대해 1순위에서 23.5%, 2순위에서 41.2%가 응답하였으며, 노숙인 지원 활동가들의 경우 1순위에서 46.8%, 2순위에서 14.9%가 응답하였다.
- 한편 인터뷰에서도 전00는 문화예술활동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드는 허탈감을 잊게 해주며,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Bandura, 1987). 또한 자기 효능감은 특정의 과제에서 특정의 결과

36

조윤옥, 2012, “쉼터 노숙인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에서 재인용

를 산출해 내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거나 실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특정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Schunk, 1990). 또한 장애에 직면하여 그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⁷

- 일반적으로 노숙인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 취업, 사업의 실패 등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무기력의 외상을 입게 되고, 이는 쉽게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동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고 타인과 성숙된 상호작용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주변의 지지를 통한 성공의 경험과 문제 해결에서 오는 성취감, 타인과 관계회복의 성공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³⁸
- 이번 조사에서 문화예술참여자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성취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1순위에서 35.3%가, 2순위에서 5.9%가 응답하였으며, 노숙인 지원 활동가들의 경우도 문화예술활동이 성취감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1순위에서 12.8%, 2순위에서 27.7%가 응답하였다.

37 이안열, 2011, “노숙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이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0에서 재인용

38 백현기, 2012,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와와의 관계”, 『디지털 정책연구』, 제10권 제7호, pp.59~67 참조

- 한편 인터뷰에서도 전002는 풍물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어울려야 하고, 그러다보면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고 하였다. 전001 역시도 연극을 올리며 성취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연극활동이라고 하였다.
- 노숙인 자원활동가의 의견에서도 남00는 문화예술활동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주변의 이들을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의 반복이기에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또 지00는 각자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들어주는 대화속에서 자기 속 상처가 드러나고 그것에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며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극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숙인 3인도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³⁹⁾

마 당 쇠 : 내가 이렇게 나가서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게 참 좋았다. 상대하고 이야기하다 떨린 적이 많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힘이 되었다.

시나브로 : 욕하는 성격이 자주 나온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연극에서 꼭 술먹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 욕심이 많았다. 그게 공연을 하면서 관객 표정을 보면서 왜 선생님들이 이걸,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그때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좀 찡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탐 진 치 : 자신감, 대인관계,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것,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보적 있나,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나,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봤나, 누구한테 야

39

김병주, 2011,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 프락시스, pp.36~39

단을 맞아봤나, 조직에 몸담은 경험이 있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기한테 수틀리면 뛰쳐나가고 여기 가서 밥 얻어먹고 밥을 먹어도 식기만 갖다놓으면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해주고 스스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맛을 뵈도 많이 했다. 하지만 연극은 팀워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자제했다. 내 별명이 예전 직장에 다닐 때 히팅이었다. 흥분을 잘해서 결국 자제력도 얻은 셈이다. 점점 사람들이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연습에서는 못했는데 무대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니 예뻐 보였다.

- 자신을 보여주고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이들은 성취감과 문제 해결의 만족감,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잃어나가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을 거치며 자기 효능감은 높아지게 된다.

33 공동체 형성

- ‘공동체’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다. 사회학적 으로 이는 자본주의적 질서와 다른 역사적 존재형태, 생산과 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관계 중심에서 출발한다. 공동체란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하는 것과 자연(공간)적 결합을 특질로 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⁰
- 현대 도시사회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바쁘고, 돈없고, 살기 힘들고, 무

40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인용

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개인화 되어 간다. 그래서 모두는 나를 지지해 줄, 또는 같은 관심사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서 다양한 인적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근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며 문화예술이 줄 수 있는 작고 다양한 공동체 가능성들을 보게 된다.

- 이번 조사에서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노숙인 응답자의 25.5%가 ‘친구를 사귀게 된다’(1순위 최대 응답)를 기대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노숙인들은 가족, 동료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최대로 약해져 있기에 누구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노숙인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허00와 전002는 풍물을 통해 ‘독려해주고 도와준 동료를 만났고, 몇 년째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 그리고 다시서기지원센터와 프락시스가 함께하는 연극프로그램 과정에서도 동료들을 서로 챙기며, 함께 연극을 만들어가는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 노숙인과 노숙인, 노숙인과 문화예술활동가, 자원활동가 사이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외롭고, 소외되고 의존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역할

- 노숙인문화예술창작공간은 노숙인들에게도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 창작센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일부에서는 “노숙인에게 굳이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해?”, “노숙인은 자활을 통해 노숙을 벗어나야 하는 대상인데 그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노숙인을 안주시키는 것이다”, “노숙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이 달라지고 함께 살려면, 다른 공간에 노숙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
- 현재 서울시에는 예술가/지역주민들을 위한 11개의 예술창작공간이 있고, 8개의 문화의 집이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 특히 잠실예술창작공간은 장애인 예술가가 입주하여 미술시장 판로 구축 및 장애·비장애 통합을 위한 예술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등 특성화되면서 관심을 받기도 한다.
- 그러나 이런 문화공간들을 자유롭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노숙인들은 많지 않다.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냄새가 나지않나?’, ‘옷은 괜찮나?’,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시민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문턱이 높다. 불편함을 느끼는 그 누군가가 많이 있다면, 그들에게 혹은 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바뀌라’라고 요구만 할 수 있을까? 그 문턱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경험을 통한 익숙함과 자유로움이 아닐까?

- 노숙인에게도 그들의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반추된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 한편 ‘노숙인 문화예술창작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는 무엇일까? 설문응답자 중 83.3%(노숙인), 93.6%(노숙인 지원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그 공간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41 관계의 그물망

- 최근 들어 경제 중심의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마을만들기”는 유무형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을 시혜적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숙인의 세계,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노숙인들의 거주가 많은 지역에 접목한다면 어떨까?
- 노숙인에게 일상적인 삶의 다른 방식을 제공할 수 없을까? 노숙인에게 끊어진 가족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베풀거나 배려를 받는 관계가 아닌 ‘돌봄’이라는 서로 주고받는 관심의 그물망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지원기관들의 시혜적 관심이 아닌, 동료, 가족과 같은 관심을 만들어 갈 때 그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지원센터, 자원활동가들은 노숙인을 시혜대상이 아닌 동료로 접근할 것을 교육받고 많은 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센터에서 현신을 다해 그들과 만났다. 그럼에도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차이로 거리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각자가 경험을 해보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데 싸울 수도 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이 필요하다.

- 집단 생활시설이나 사무적 행정 공간이 아닌 개별성,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적이고 선택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각자 필요에 따라 공간을 선택하여 교육받고, 연습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룹별로 함께 식사를 해 먹고, 다양한 제안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공간이 노숙인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 밴쿠버 카네기센터처럼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곳곳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선후배가 만들어지고, 여러 자원 활동가,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예술가들이 함께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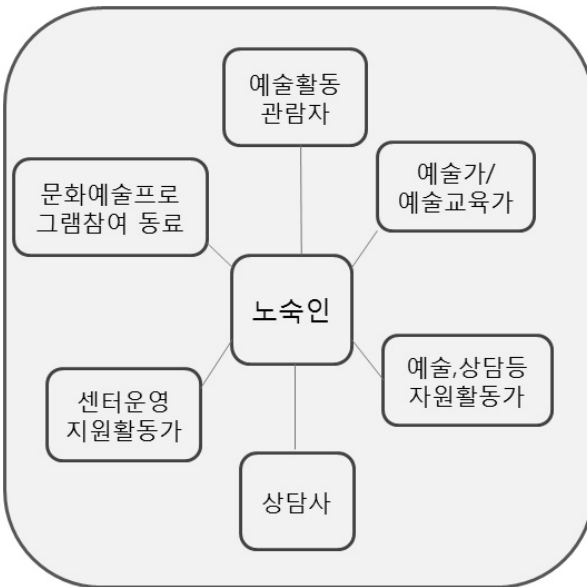


그림 5-1 관계 그물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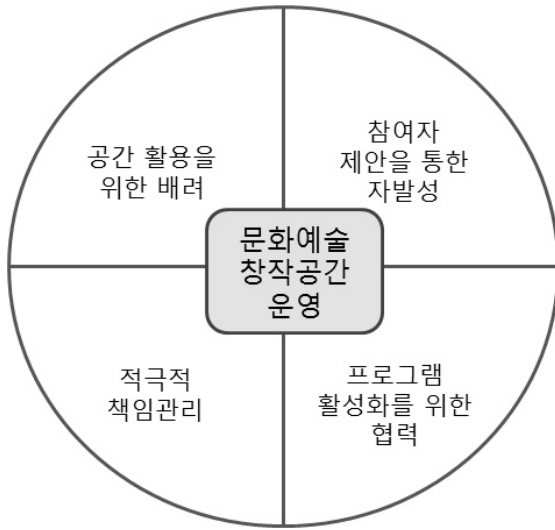


그림 5-2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의 노숙인 효과

4.2 노숙인 문화예술의 실험실

- 이번 노숙인과 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노숙인 102명 중 48%가 현재 그리고 이전에 노래, 연극, 악기, 춤, 사진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83.3%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71%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노래, 연극, 풍물, 밴드, 사진, 영상, 무용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이번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사과정에서 각 기관의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서울에는 39개 이상의 노숙인 상담센터, 재활쉼터, 쉼터가 있다.⁴¹ 몇몇 자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야기가

41

서울 노숙인시설 협회 소속 기관 현황에 39개가 조사됨(서노협 홈페이지 참조). 「2011년 부랑인·노숙인 현황보고서」의 경우 응급보호소, 시설, 쉼터가 51개 조사되어 있음.

들리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았고, 미술 프로그램의 경우 치료차원의 상담프로그램으로 담당자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은 기존의 공간 제약성, 운영여건의 어려움, 자활기관의 인력 한계로 인한 담당자 부재 등의 문제로 추진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연극/무용 연습실, 음악연습실, 영상 편집실, 녹음실 등 다양한 연습 공간과 도서관 등의 휴식 공간을 보유한다면, 노숙인들의 다양한 제안을 토대로 문화예술 및 예술교육 활동의 지원, 예술가 및 시민들의 재능 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때 노숙인들이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음악과 연극, 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면, 이들이 생활 예술가로 참여하여 새로운 예술 실험들이 만들어지고, 외부와 소통되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다.
- 또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노숙인들의 휴식공간이자 토론의 공간이 된다. 밴쿠버 카네기센터처럼, 설문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희망한 것처럼 작은 도서관, 휴게실, 부엌, 농장은 그들이 함께 생산하고 식사하며,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도와주는 많은 자원활동가 및 활동가(노숙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가능할 것이다)들은 이 곳에서 일상 속 소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일부에서는 ‘문화예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숙인들의 공간 활용이 높겠는가?’ 라는 질문도 하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

축해야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 서울의 거리노숙인은 1,395명이며, 시설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10,592명이다. 노숙인의 많은 수가 서울역과 영등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의 공간을 반영한 지역 설정(예를 들어 용산구 등)이 이루어지고, 여가시간이 많은 노숙인들이 1일 평균 50~100명만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서울 노숙인구의 0.5~1%가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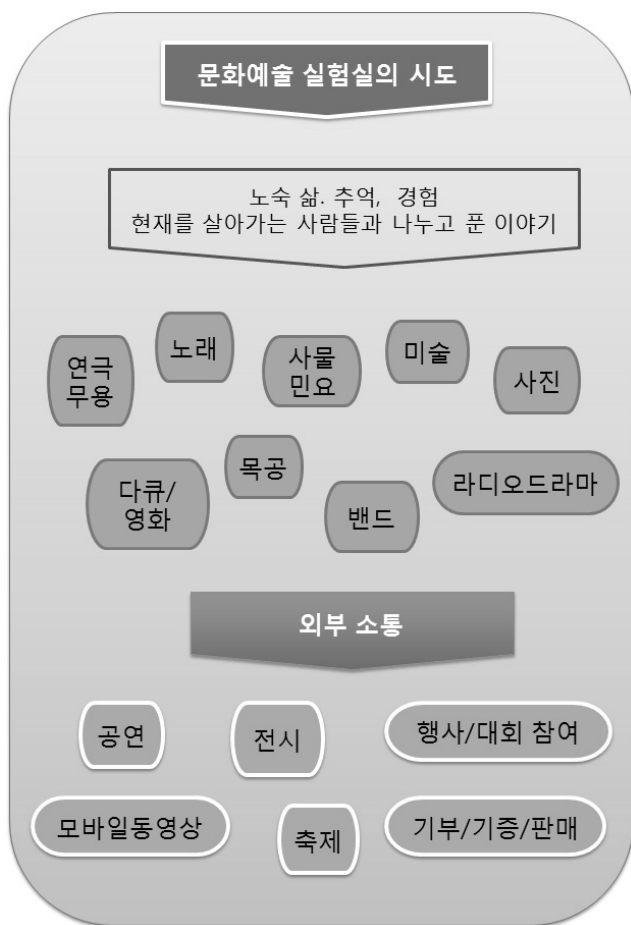


그림 5-3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프로그램 및 외부 소통 방법

- 문화예술활동은 노숙인들의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성취감, 공동체성을 키워준다. 노숙인들의 문화예술창작공간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그물망, 그리고 그것을 엮어줄 문화예술은 노숙인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제공해 준다.
- 시민문화예술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의 고유한 생산물이 아닌 생활 속에 그들의 삶을 예술적 표현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 그것이 결과물로 만들어질 때 오는 성취감과 관계에 대한 반성들은 사람을 성장시켜준다.
- 문화예술은 삶,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예행연습이 된다.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만큼은 자활이 주 목표가 아닌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주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 속에 안주가 아닌 외부와의 많은 네트워크는 함께 노숙인의 자활과 경제,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 노숙인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성장을 한 사람들은 밖으로의 소통을 열어갈 것이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하게 된다. 활발한 활동들이 외부와 연계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노숙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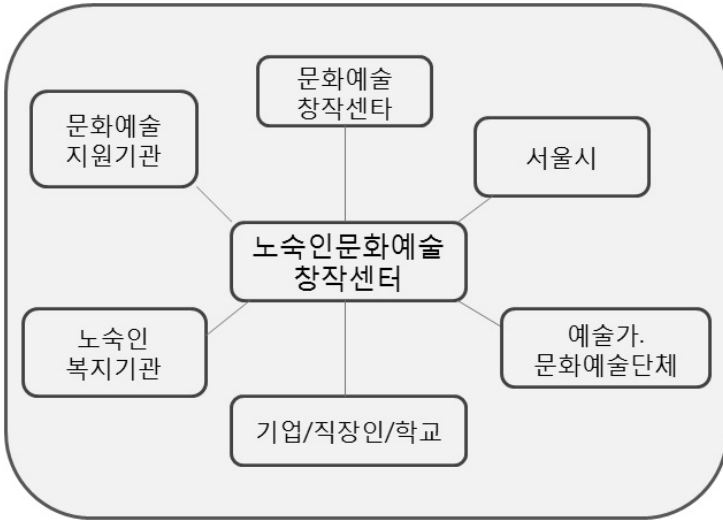


그림 5-4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외부 네트워크

VI 결론

1 제언

2 향후 과제

VI 결론

1 제언

- 노숙인의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원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 ‘노숙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제안을 하면 ‘노숙인들에게 굳이 그런 공간이 필요한가? 그들이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 ‘노숙인’에 대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음을 본다. 우리 모두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창피해 하거나 욕하는 것으로 듣는다. 노숙인들의 연극을 본 한 초등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 살면 저렇게 되겠죠?” 이 말을 들으며 참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분이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얘기를 만약 연극을 했던 배우가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였을까?
- 그리고 점차 사회 곳곳에서 ‘문화복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문화복지사’까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노숙인’ 복지는 의식주 중심, 자활을 통한 사회 복귀에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 복지’라는 말이 아직 낯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노숙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 그래서 이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조사와, 노숙인에게 문화예술이 미치는 의미에 대한 조사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숙인의 삶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며, 그 사업 방안 중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제안한다.

- 이 연구에서 설문과 인터뷰 조사, 그리고 국내외 몇가지 사례 분석을 한 결과 노숙인, 그리고 노숙인의 문화복지에 대해 다음의 제안을 하게 된다.

□ ‘노숙인’도 시민이다.

- 현대 도시 사회가 만들어 낸 ‘노숙인’이라는 계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노숙인’은 현대 도시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로서, 의식주 지원만으로 사회 복귀가 되기 어렵다. 노숙인에게는 그들을 향한 ‘지지’와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 노숙인을 위한 ‘문화복지’가 필요하다.

- 노숙인들의 생활은 무기력하고 단조롭다. 단절된 관계는 외로움을 주고, 자존감도 약하게 만든다. 이들의 삶에 동력을 줄 수 있고,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노숙인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인 것이다.

□ 노숙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하다.

- 노숙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자존감과 자기효율감, 성취감을 준다. 또한 함께 배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통의 관심 공동체는 새롭고 건

강한 관계를 맺게 한다.

□ **노숙인 문화복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노숙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날 실험실이다. 기존의 자활기관들에서 자활·재활의 시각으로 작은 사례들이 만들어진다면, 문화복지, 문화예술 다양성의 시각에서 다채로운 가능성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
-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노숙인에게 새로운 관계 그물망이 될 것이다. 기존의 복지기관은 노숙인을 수혜대상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관점은 노숙인을 주체로 두고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만들 수 있다.
-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노숙인 문화지원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며, 삶을 성장시킨다.
- 이전의 노숙인 공간은 자활·재활 중심의 사회복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대한 논의와 형성은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문화복지가 만나는 지점이 된다. 그 속에서 문화예술과 사회 지원의 만남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2 **향후 과제**

□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숙인의 문화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사건면에 심심찮게 노숙인이 거론된다. 문제 발생시 노숙인은 가장 먼저 분리 대상이 된다. 노숙인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에서 출발한다. 일반

화의 오류를 벗겨 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노숙인의 발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한 노숙인의 생각, 삶,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 **노숙인들의 문화예술 축제를 제안한다.**

- 노숙인의 문화예술활동 현황에 대한 많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혹은 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50% 가까이 되었다.
- 노숙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공개되고, 그 활동 속에 노숙인들의 삶, 생각들이 공유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 본 연구진은 3년간의 연극 발표 속에서 그 가능성을 읽었다.
- ‘서울 시민청’, ‘서울역 박물관’ 등 상징적 공간에서 축제를 통해 노숙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제안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노숙인에게 갖게 되는 선입견은 한 단계씩 변화될 것이다.

□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 연구에서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성격이기보다는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할 사업 방향이기 때문에 연구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에 대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다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어디에 세울 것인가? - 노숙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서울에서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퍼져있다. 이는 인력 시장과 자활·재활기관, 급식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간을 설립하면서 노숙인을 분산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노숙인의 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기존의 공간에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숙인들이 쉽게 많이 올 수 있는 서울역, 남영역, 용산 주변을 넘지 않으면서 도시의 ‘빈 건물(공간)’을 제안한다.

- **둘째, 누가 운영할 것인가? - 노숙인 사회복지 전문가와 문화예술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 지난 5개월간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연구를 하며 많은 활동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 다른 경험들을 모아내기에는 사회복지 시각에서 보는 문화예술/문화복지와 문화예술의 시각에서 보는 문화복지 사이에 차이를 보았다. 노숙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에 사회복지 전문가는 노숙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운영과 문화예술 효과에 좀더 집중했다면, 문화예술 전문가는 예술이 가지는 다양성, 예술을 통한 관계에 좀 더 집중했다. 이들의 협력이 사회복지에서는 문화예술의 시각을 넓혀줄 것이며, 예술분야에서는 시민문화예술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 셋째,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 노숙인을 중심에 둔 다양성의 필요

-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 인터뷰를 하면서 노숙인, 지원활동가 모두 노숙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필요에 대해 많이 공감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야기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노숙인 중심에서 공간을 생각해 달라고…
-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얽어야 할 것이 많다. 그만큼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 이때 ‘노숙인은 주체적일 수 없다’, ‘노숙인에게 많은 규칙과 제한이 필요하며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시민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과 휴식,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 속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 김병주, 2010, “시민연극(Applied- Theatre)을 이야기하다!”, 「왜 시민연극인가? 필립테일러 초청 시민연극 심포지움」
- 김세훈·조현성,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수영, 2012, “보편 인권체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노숙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3호
- 김의태·강대중, 2012,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가능성”, 「평생교육학회보」 제19권 3호
- 김준호,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거리 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1권 2호
- 김지연, 2012, “문화예술교육에서 희망을 본다”, 「아르떼 웹진」 2012. 6. 18
- 김찬호, 2006, “관계의 끈이 이어지는 마을”,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또하나의 문화.
- 남기철, 2012, “노숙인과 함께 살아가기”, 「국회입법조사처보」, 2012 봄호
- 남기철, 2012,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동향」 2012. 6
- 남지현, 2012,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 도쿄의 ‘빈 건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연구원」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0, 「2009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 「2012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 백현기, 2012,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와와의 관계”, 「디지털 정책연구」 제10권 제7호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부랑인·노숙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 사청인, 2013, “뉴스보도에서 예시를 적용한 정서유발 프레임과 책임귀인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노숙자 이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거리의 인문학」, 삼인출판
- 양우진, 2011, “노숙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시설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엘리노어 레이몬드, 2011, “노숙인, 예술을 만나다”,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네트워크 심포지엄자료집」

유승희, 2012, “노숙인의 관점에서 본 노숙과 자활-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 대회

이상훈, 2013, “즐거운 사회, 공공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자!”, 「이슈와 진단」, No. 105, 경기개발연구원

이안열, 2011, “노숙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이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현숙, 2012, “일 요코하마 대표적 슬럼가가 확 달라졌어요”, 한겨레신문, 2012. 8. 9

이현숙, 2012, “어르신들이 살맛나는 세상”, 한겨레신문, 2012. 8. 17

임영인, 2007,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배제, 노숙인과 노숙인의 인권”, 당당뉴스, 2007. 1. 20

장순재, 2012, “노숙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오, 2012,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현재의 쟁점”, 「복지동향」, 2012. 6

정원오, 2013, “노숙인 복지법 제정 1년, 쟁점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3호

조운욱, 2012, “쉼터 노숙인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프락시스, 2011,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

허미진, 201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carnegie-community-centre.aspx>

<http://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carnegie-centre-arts-and-culture.aspx>

<http://www.heartofthecityfestival.com/>

www.homeless-seoul.or.kr/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홈페이지

작은 연구 좋은 서울

2012

- | | | |
|----|---|-----|
| 01 |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 홍인옥 |
| 02 |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 남지현 |
| 03 | 서울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 이원재 |
| 04 |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문수 |
| 05 |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연계방안 연구 | 이주원 |
| 06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 임화진 |
| 07 | 문래예술공단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연구 | 김 강 |
| 08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 문진수 |
| 09 | 개미이웃 | 이유정 |

2013

- | | | |
|----|--|-----|
| 01 |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 김지연 |
| 02 |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 김준현 |
| 03 | 서울 학교 햇빛발전소 실태조사와 개선방향 연구 | 박규섭 |
| 04 |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 | 김수아 |
| 05 | 서울시 사대문 안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기초 연구 | 이윤희 |
| 06 |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 김봉렬 |
| 07 |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부영 |
| 08 |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인의 서울관광동향 분석 | 백리나 |
| 09 |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찬 |
| 10 | 도쿄는 어떻게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는가? | 이현석 |

서울연 2013-PR-20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8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ISBN 978-89-8052-566-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